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

2021년 1월 22일(금) 14:00~16: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CONTENTS

지역화 관련 교육진흥원 진행상황 공유

.....	05
-------	----

주제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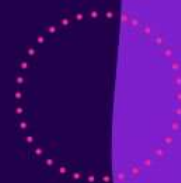
·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13
최보연 교수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의 변화	31
김진희 센터장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협력위원회 위원)	
·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과제	43
김용진 팀장 (연수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지정토론

· 지역화 대비 제도적 준비 필요사항	67
오원엽 주무관 (완산구청 건축과 / (前)전주시 문화정책과)	
· 지역화 대비 광역단위 준비 필요사항	83
이현혜 팀장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협력위원회 위원)	
· 지역화 대비 현장 준비 필요사항	91
전영주 팀장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협력위원회 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	99
-------	----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



지역화 관련 교육진흥원 진행상황 공유

허윤정 팀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문화예술교육 지역협력위원회

□ 지역협력위원회 설립 개요

○ 설립목적

- 문화예술교육 정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중앙-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지원·협력체계 강화
- 지역 분권화 기조에 따른 중앙-지역 간 역할과 사업 조정 및 단계별 지역화를 위한 전략 수립과 시행

○ 설립시기 : 2018. 1. 9(화)

○ 위원구성

- 위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대표 공동 구성
- 위 원: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담당 사무관, 교육진흥원 본부장급,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련 부서 팀장급



지역화 주요주제



발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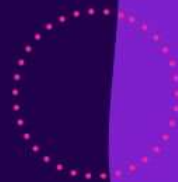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은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과연 어느 정도로 지역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논의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도 곳곳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정책을 실제로 실현해가는 주체인 광역센터나 기초문화재단이나 지자체 분들과 함께 진흥원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 관련된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또 의미 있는 자리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진흥원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지역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이제부터는 중앙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으로 내리기만 하는 방식이 가진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이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의논이나 결정들을 함께해 나가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런 채널들이 필요하겠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리고 17개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의논해가면서 중요하게 결정하고 의논하는 협의채널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역화가 되면 그 현장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기때문에 지역화와 관련된 단계, 전략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함께 만들어나가자라는 취지의 협의기구입니다.

실제로 그간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의미 있는 의사결정들이 되어지기도 했고 발족되었던 2018년 첫 해에는 지역협력위원회를 통해서 법정계획인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으로 17개 지자체들이 각각의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지역에서 돌아가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이 당초에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활성화로 나누어서 있던 예산이 통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이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포션을 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한 해 동안 지속을 해 왔고 그 결과물로 지금 사업의 구조가 정착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들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만나면서 지역화에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을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고 그중에서 주요한 이슈들이 제도, 거버넌스, 재정 이런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가 이루어졌을 때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안에서 후 순위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효성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계속되었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벗어나서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의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별로 자율적 협력체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왔고 점차적으로 계속 생활과 밀착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추진 체계가 확장되어가는 역할이 어떻게 변해 가야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연관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도 지역분권이 가속화되면 지역 안에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를 채찍질 했던 부분들은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지치지 않고 묵직하고 끈기 있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해답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협력위원회 안에서만 맴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외부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행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셨던 지자체, 기초단위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



주제발제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최보연 교수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
(2021.1.22)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최 보 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1

목차

1. 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2. 지난 4년 간의 변화와 (중간)평가

3.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실현, 남겨진 과제

2

1 정책 환경 변화 및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1) '지방분권' 강조하는 중앙 정책의 변화

-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제시
- » “자치분권 로드맵” (17.10월)
- » “자치분권 종합계획”(18.9월) 연이은 발표



자치분권 종합계획

(비전)
(6대 전략)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국민 주권 구현,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

3

1 정책 환경 변화 및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2) '문화분권' 강조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문화비전 2030(18.05)



새 예술정책(18.05)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18.01)

- » 문화정책 전반의 중앙주도 성향에 대한 성찰 → **지역 중심으로의 선회** 공표
- » 문화예술교육 : 가장 대표적인 '문화적 분권' 영역 중 하나로 지목

4

<문화비전 2030>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가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3대 방향 9대 의제	1.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문화실현 2.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⑥ 지역문화분권 실현 3. 사회의 창의성 확산 ⑦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06
의제

지역문화분권 실현

(배경)

- 지역의 문화는 **주민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 가는 것이 기본 원리
-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민주주의 실천방안 모색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중앙과 지방 간 협치 모델 설계

- (세부)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및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기반 마련 등

5

<새 예술정책 2018~2022>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목표	예술지원체계에서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예술 창작·향유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술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삶의 질 제고와 사회혁신에 기여
방향	자율과 독립 예술 가치 존중 분권과 협치
추진전략	핵심과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1.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3.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4.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함께 누리는 예술참여 확대	5.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7.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8. 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

(세부과제)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 지역 문화분권, 협치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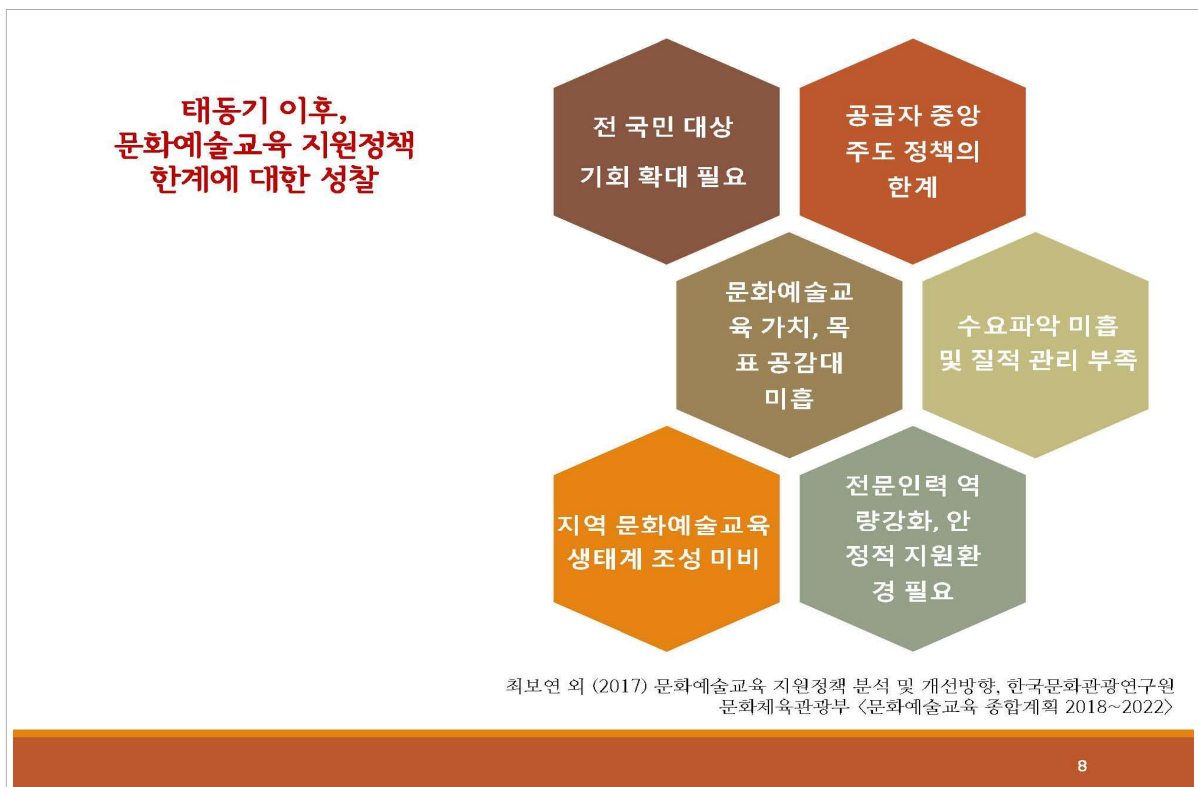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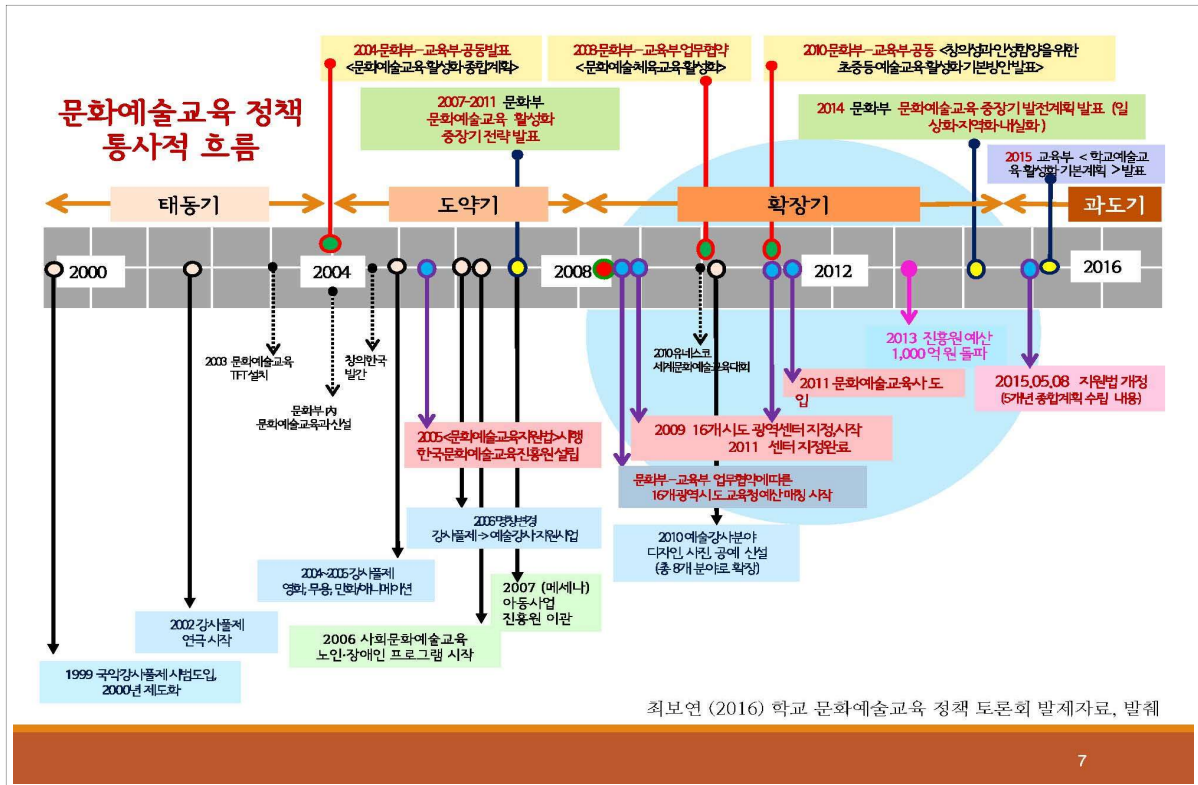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역중심 추진체계 개편

- 중앙-지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역할 재정립
- 지역별 중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 등 기반 체계화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추진체계 구축

- 광역센터=지역 거점기관으로 역할 강화
- 지역밀착형 기초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지정방안 마련 추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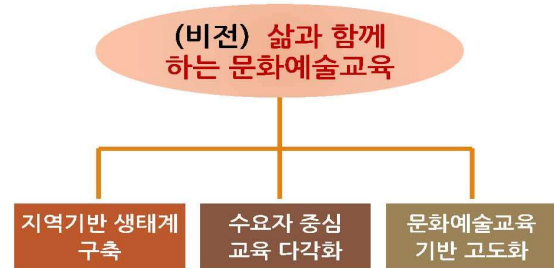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15.05)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이후, 지역계획) 법적 수립 의무화에 대한 조응



» 문화체육관광부 **최초 '문화예술교육' 법정 종합계획**(18.01)

- 지역 문화분권 최우선 가치 제시
- 수요자/생활권 중심의 지역문화예술 교육 생태계 구축 강조



9

1 정책 환경 변화 및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흐름

3)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특성

- » 정책지원의 재도약: 3개 전략 중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최우선 순위 설정이 주목
- » 수직적 '전달체계' ⇒ 지역 자율성 고려한 '협력체계'로의 전환 명시 및 강조
- » 중앙 - 광역지자체 및 광역재단 - 기초단위 구심점을 통한 연계성, 확장성 강조



- 중앙 종합계획 반영한 각 **지역별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추진방향 및 세부 실행과제 제시하는 것이 관건
- 중앙 공통사항 반영하되, 지역 특수성 반영이 요청됨

10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2014-2017)
(2014.02 발표)

비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	
목표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중점 과제	일상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문화복지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지역화	지역중심의 프로그램 확충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내실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문화예술교육 연구기능 확충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주요 키워드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 국민행복,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선순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2018.01 발표)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목표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추진 전략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화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지원연계강화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수요자중심 교육다각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기초확산 및 홍보강화
주요 키워드	지역분권(지역자율성), 협력, 국민 문화생활(cultural life), 수요특성화(시민), 생활밀착형, 융합 확장연계(영역/협력 및 추진체계)	

» 이전 '지역화' 논의 평면성 대비, 2018년 종합계획은 **구체적+입체적+실천지향적 접근 강조**

11

2 지난 4년 간의 변화와 평가

1) 정책,제도적 차원의 변화(내용)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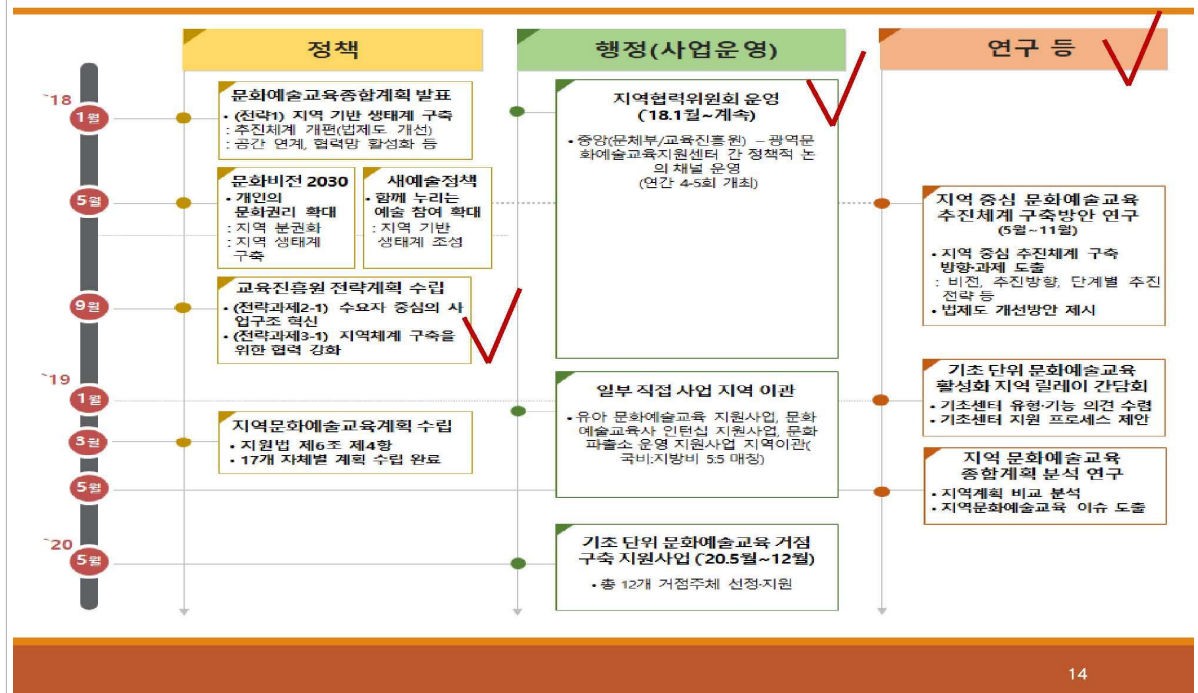


지역화 관련 교육진흥원 진행상황 공유

추진전략	추진과제	주요 추진내용
1.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1-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 완료:17개 시도 전체완료(최초)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 확대 (18) 광역 6개, 기초 4개 → (20) 광역 14개, 기초 11개 - 국고보조사업 통합개편으로 지역 자율적 기획여지 확대 - 분리추진되던 '꿈다락+지역특성화+센터운영비'(2개사업+운영비) → 기반구축사업(1개 사업)으로 통합 - 중앙사업의 단계적 이관 (2019/교육진흥원-광역센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이관 - 생활권 중심의 기초단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노력 (19)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역 릴레이 간담회 추진(12회) (20)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12개소) 선정(교육진흥원,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 지원사업)
2.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1-2.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공꾸는 예술터) 2개소 조성 완료(전주, 성남) 및 5개소 조성 진행 중(강릉, 청주, 밀양, 장수, 부산북구) - 지역 내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문화파출소) : 파출소 유휴공간 활용(누적 9개소)
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1-3.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 중앙-지역 간 협력 강화 -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센터 간 지역협력위원회 운영 (2018.1.9. 발족/18년:6회, '19년:5회, '20년:4회 등 추진) - 지역중심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 강화 (2021/기반구축사업) 지역 내 학교 및 문화예술교육 시설단체 등과 협력체계 강화 및 광역-기초 간 연계사업 확대 강조

13

2 지난 4년 간의 변화와 평가



14

2 지난 4년 간의 변화와 평가

2) 정책, 제도적 변화에 대한 (중간) 평가

- 제도적 안정성 확보 노력
 - » 광역별 '지역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확대
 - ⇒ 중앙의 힘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
 - » 지역계획 일부 유사성 발견되나, 지역 고유 환경+특성을 반영한 시도 확인되는 것은 고무적
- 지역협력위원회 (2018~) 중심, 중앙-지역 소통채널로서의 지속성과 실천성 모색
 - » 지역별 공통된 정책 및 사업단위 변화 등을 위한 논의구조로서 활용이 시도
 - ex. 센터운영 현실화를 위한 예산편성 조정안, 운영지침 협의 등
- 기초단위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주체 발굴, 지원 시도
 - » 기초거점사업 추진 (20년도 8억, 12개소) 등

15

3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남겨진 과제들

잔존하는 하향식 정책구조의 유연화, 전환의 필요성

- 지역 이관 사업 경우, 기존 중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 지역 고유의 자율적 의제 바텀-업(bottom-up) 수렴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황
 - » 중앙은 관리적 관점을 벗어나되, 지역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실험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 (ex. 지역협력위 역할 강화 혹은 변화 포함)
- 광역센터 위상 재정립 문제
 - » '지원법' 제10조 '지역센터' 역할/사업 설정 안 폐기 (19.04.23. 정세균의원 발의안)
 - » 지정주체 관련 검토 추후 필요

중앙, 광역, 기초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단선적 관계성이 아닌 **입체적 관계성**으로의 접근 필요
(중앙 vs 광역, 중앙 vs 기초, 광역 vs 기초)

16

3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남겨진 과제들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식, 체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확대 필요

- 생활권 단위, 주민수요 기반 다양한 접근 방식이 가능할 수 있는 '기초'
 - » 기초 별, 규모/역량의 차이가 큼
 - » 그러나 그간 지역이 주체가 되었던 경험 미비로, 관성적 접근 보이는 경우도 많음
 - » 스스로의 역량 발굴, 개발을 위한 시간, 실험의 필요성
 - » 사업 실행주체로서 **민간** 발굴 지원하는 방식, **공공**은 또 다른 소규모 기초거점으로서 이들의 실험, 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 중앙은 장기적/단계적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 지난 경험을 통한 성찰
(ex. 2004~2007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006~2009 기초문화예술지원센터 지원사업
2010~2011 지역거점 네트워크 조성 지원사업 등)

17

감사합니다

18

발표 요약

그간의 정책적 변화나 배경, 이런 것들은 익숙하실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는 먼저 그동안의 정책환경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지난 4년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면 이것들은 어떤 것일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지역화 의제는 사실상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2017년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국정 5대 목표를 발표했었는데 당시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리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서 제시한 바가 있고, 실제로 자치분권 로드맵이라든지 혹은 자치분권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별도로 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분권, 지역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이 종합계획에서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고 거대하게 제시하기는 했는데 사실 자치분권이나 지역분권을 중앙이나 지역 간의 권한 배분, 권한 이항, 이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합계획에서 주목되는 지점들은 이런 목적 자체가 국민들의 참여적이고 주체적인 권리를 구현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로서, 방법론으로서 자치분권이 굉장히 중요하는 것을 짚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타 정책 영역 분야에도 아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가운데 문화정책 분야도 다를 수가 없겠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문화정책이 어떤 다른 세계,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급 성장 해 왔는데 그 가운데에는 중앙주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점이 장점이자 한계점으로써 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문화비전2030, 예술정책에 집중해서 발표했던 새예술정책, 이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종합계획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에서 중앙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역분권을 지역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일관적으로 공표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주목될 만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새예술정책 등을 보면 문화정책 전체 분야 중에서 문화적 분권을 이뤄낼 수 있는 영역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화비전2030에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하에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9대 의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여섯 번째 지역분권의 실현이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6번째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겠

지만 지역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 예술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전 정부에서 우리 정책분야에서 특히 예술분야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율과 독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3대 방향 중 하나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분권과 협치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3대 방향성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중심으로 특히 중앙과 지역 간 그리고 진흥원과 광역센터간의 역할 재정립이라든지 광역센터를 지역의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밀착형인 기초단위의 교육센터를 마련하겠다는 방안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예술교육이 2000년대를 전후로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해 왔다는 것은 다들 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교육부나 문화부가 같이 전략을 발표를 한다라든가 계획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제도적인 변화라든지 정권 기초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침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외향적으로는 2000년대, 2003년 정도는 80억 규모의 예산이었던 것이 현재는 1300억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정책기조가 바뀔 때마다 그 안에서의 부침이 있었던 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체가 한편으로는 탄탄하게 이루어져왔지만 그 내에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6년, 2017년 이맘때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가장 주요하게 지목되었던 것은 사실 공급자 중심의, 중앙 주도의 정책의 한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것과 일관성 쌍둥이처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정권교체 그 이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의제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실은 2018년 5월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국정기조, 문화비전2030, 새예술정책 그 연계선상에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지역분권 의제를 담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2009년, 2010년 그 이후 광역센터가 생긴 이후부터 진흥원과 광역 간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역화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기 때문에 내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그 영역 자체 내에서의 지역화 이슈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그런 니즈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2015년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된 바가 있죠. 그 내에서의 법적인 법정계획, 중앙 차원에서의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토대로 하되 지역의 어떤 특성을 담은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역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2015년 이후로도 그 지점이 해결되지 않다가 정권이 교체되고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외연적인 정책 환경, 분위기 속에서 거의 최초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법적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특성을 보시면 이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지만 그 지역화 이슈가 내재적으로도 있었고, 외연적인 환경에서의 지역분권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3개 전략 중에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을 가장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는 것이 특히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면 3대 방향으로 주요하게 추진과제로 했던 것이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과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문화예술교육의 기반 고도화 이 3가지였었는데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이라는 부분을 가장 강조했었던 것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종합계획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중앙과 지역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뭔가를 전달을 한다, 전달체계,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굉장히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그런 지점에 대한 어떤 성찰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내에 보면 전달체계라는 말보다는 그 단어가 사라지고 협력체계라는 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종합계획으로 부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으로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하되 지역 내에서 각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지역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그 안에서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정책분야에서 그 논의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라는 굉장히 명쾌한 3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그 내에서의 지역화 이슈를 다루기는 했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졌던 과제들을 보면 지역 중심의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확대, 전달체계 개선, 여전히 중앙 중심의 관점이 굉장히 농후한 그리고 약간은 평면적인 지역화를 이야기하는 하지만 조금은 평면적인 그런 것들이 강했었습니다. 이후에 비교하자면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일단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이라는 굉장히 주요한 선결해야 하는 이슈로써 앞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입체적으로 가려는 예를 들면 지역 중심

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광역과 기초라든가 그 관계성 혹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공간과 자원을 어떻게 연계할지, 혹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협력망들이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명확하게 좀 대비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종합계획에서 이야기했던 3가지 영역 중에 단연 돋보이는 부분들은 가시적으로 가장 보이는 것은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에서 제도적 차원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이라는 그 추진전략 안에는 3가지의 의제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추진체계를 지역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 공간과 자원을 연계하겠다는 것, 협력망 활성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 3가지 의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가장 많은 성과를 내왔던 부분은 첫 번째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추진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정비하겠다는 관점에서 성과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허윤정 팀장님께서도 짚어주시기는 하셨지만 사실 종합계획 수립 이후에 17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계획들이 다 완료가 되었고 시도별 문화예술교육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큰 주목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국고보조사업, 꿈다락이나 지특 그간 센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광역센터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숨통이 트여서 자율적으로 그 내에서 움직여볼 수 있는 룬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역기반 구축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는 점과 생활권 단위, 기초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2019년에는 기초단위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작년부터 기초단위의 거점을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점도 조금 주목되는 그런 지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책영역뿐만 아니라 행정영역에서도 있었고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도 많이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화 전략이라 논의들이 정부계획으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진흥원의 전략계획, 기관의 전략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지역체계 구축에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는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역협력위원회, 허윤정 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논의의 구조를 가져가려 했던 점은 큰 지점이었다고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본다면 지난 4년 간의 이런 변화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에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 수립, 조례 재정확대라든지 이것은 중

양의 힘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로써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 17개 시도에서 만들어냈던 지역계획의 경우 물론 굉장히 성급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하셔야 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나름대로 지역 고유의 환경이나 특성을 반영한 시도들이 보인다는 그런 평가를 현장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천성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했다는 점, 기초단위 추진체계를 발굴하려는 시도했다는 점 다 좋았는데 이 3가지를 다 보면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나 이런 데에는 많이 주력을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더 기초단위로 내려갔을 때 밀착형으로 주민의 관점, 시야에서 정말 꿈틀꿈틀하고 풀뿌리 차원에서 현장의 변화가 체감 되었느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됩니다.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중심 문화예술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들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일단 3가지 정도로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후 발제자나 토론자 분들께서 자세하게 발제나 토론을 준비해 주시고 있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주요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하는 부분은 물론 지역 중심으로 가겠다, 추진체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려는 많은 노력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하향식 정책구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들 여실하게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유연화되어야 하고 더 전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 그리고 향후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회 쪽에서 진행되는 사업들도 광역으로 혹은 지역으로 내려보내어 같이 추진하려는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 이관사업들의 경우에는 기존에 중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지역협력위원회가 굉장히 큰 협력망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밀도감이 초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졌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밀도감이 약간 낮아졌는데 상대적으로 그 창구 자체도 처음에는 중앙과 주로 광역 간의 제도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내용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사실상 지역 고유의 어떤 자율적 의제의 바텀업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써 기능을 했을까라는 지점에서는 여전히 좀 남겨진 과제가 아닌가, 그러면 향후 지역 협력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변화가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점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센터의 위상 재정립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는 않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의 어떤 지역센터의 역할이 지금 진흥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것을 법제적인 차원에서 바꾸려는 노력들이 그동안 있어왔지만 아직 실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광역센터를 지정하는 주체가 문체부로 그냥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느냐 혹은 광역과 지자체와 문체부가 같이 공동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은 추후 검토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화 이슈가 그 전까지는 중앙과 광역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2009년 이후 10여 년간 있어왔던 내용들도 기초보다는 광역과 중앙 간의 관계성 중심으로 많이 됐었고 실제로 지역분권과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도 그 관계성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초로 준비하고 있고 기초의 거점이나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과 광역과 기초의 관계성을 단선적이면 안 된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성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가져갈까, 그렇다면 조금 쪼개서 본다거나 다르게 바라봐야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과 기초의 관계는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또 광역과 기초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지 이 논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실험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전폭적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계획이라든지 문화비전2030, 새예술정책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것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차원, 특히 중앙과 광역의 관계성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은 있어왔지만 정말로 지역의 중심에서 이런 것들이 생태계 조성이 일어나고 그것이 정말 체감이 되려면 정말로 기초 단위에서의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규모와 역량의 차이가 큼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다음에 그간 지역이 주체가 되어 왔던 경험이 좀 미비했던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초지자체에서도 관성적인 접근을 보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는 지난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기초에 대한 그 기초를 활성화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은 시범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기초센터 지원사업, 지역 거점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미 10여 년 전에 끝났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요했던 것은 기초는 그만큼 자원의 편차라든지 인간의

토양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난 사업들이 다 단기, 시범사업으로 끝났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앙은 장기적 단계적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광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기초와의 관계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져갈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의 변화

김진희 센터장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협력위원회 위원)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의 변화

경 기 문 화 예 술 교 육 지 원 센 터



CONTENTS

01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소개

02 광역센터의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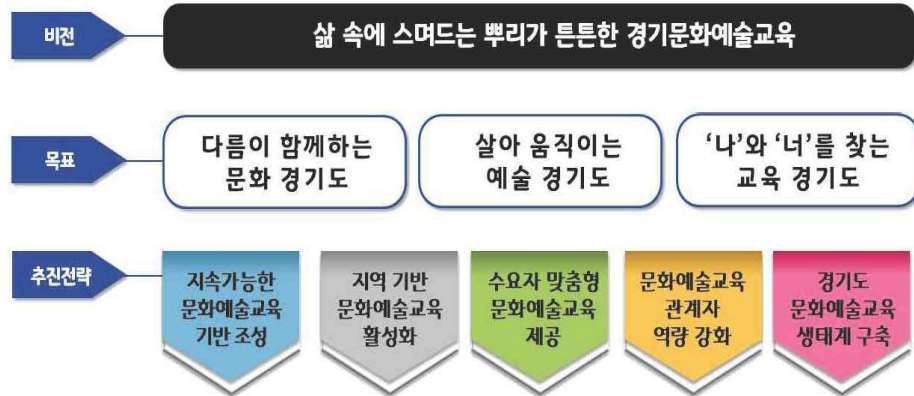
- 대내외 경영환경 및 시사점
- 문화예술교육 현안과 2020 추진내용
- 재단 정책과제와의 연계

03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개선

- 2020 찾아가는 컨설팅 & 양식개선 워크숍
- 2021 지역 상호 협력망 구축
- 2021 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조성



01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2 광역센터의 환경 변화

○대내외 경영환경 및 시사점

경 영 환 경		시 사 점
대내환경	- 지역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사업 수행 시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 필요 - 문화예술교육 기관/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필요	⇒ -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 다각화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통로 확대 -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강화 및 사업 발굴·지원 - 관련 기관과의 협치 체계 마련
대외환경	- 시민문화교육사업 수요 증대 -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 문화예술교육기반 구축의 지역화 요구	
정책과제	-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 - 누구나 차별 없는 문화복지 실현 - 광역·기초교류·협치 모델 구축	

02 광역센터의 환경 변화

○ 문화예술교육 현안과 2020 추진내용

문화예술교육 현안	⇒	2020 추진내용
경기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경기형 예술교육 기획사업
비대면 사회를 준비 기술융합 문화예술교육 실험·역량강화	⇒	데이터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전문연수과정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다각화	⇒	생애주기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 개발 유아예술교육 · 학교 교과연계 교육연극 청소년 장르특화 예술교육 · 시민예술학교
사회적 혐오와 차별 이슈에 대응	⇒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 가치확산 애니메이션 제작



02 광역센터의 환경 변화

○ 재단 정책과제와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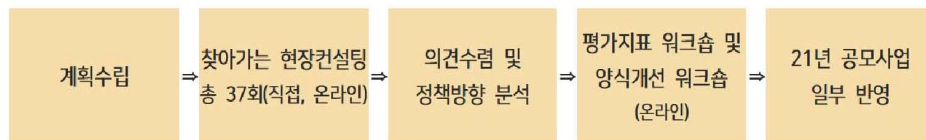
정책과제	2019연계사업	2020 연계사업
과제2 미래세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	① 문화예술교육사인턴십 지원사업 ② [산설]문화예술교육 청년매개자양성과정 ③ [산설]경기예술교육활동가 전문연수과정
과제5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확산	① 기반 구축공모사업 60건 ①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① 기반 구축공모사업 83건 1.5배수 확대 ①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② [산설]경기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발전방향 연구
과제7 누구나 차별 없는 문화복지 실현	① 소외계층 문화나눔 사업	① 소외계층 문화나눔 사업 ② [산설]문화다양성 사업
과제9 광역·기초교류 협치모델 구축	경기형 문화예술교육발굴 시범지원	[산설]기초문화재단 협력-지역거점 중심 3대사업 추진 (시민예술학교, 학교예술교육사업, 청소년 예술교육 장르특화)
과제11 경기문화대표 브랜드 개발	경기형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수립	[산설]경기형 예술교육 기획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형 교육체계구축)



03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 2020년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 평가지표·양식개선 워크숍

- 센터와 현장의 실질적 소통 강화
- 정책사업의 민관 협력 설계 토대 구축
- 2021년 이후 지원체계 설계를 위한 시사점 도출



03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 2020 양식개선 워크숍

문 제 점	개선방안
수업 회차 기술의 불필요성	프로그램 회차의 모든 과정기술항목 삭제
선정 이전 예산 작성의 불필요성	지원세부예산은 선정 후에 작성하게 서식 변경
행정과 현장교육의 거리감	자기철학과 신념을 각자의 언어로 작성하는 방안 모색 예) 작가 포트폴리오처럼 사진 자료 활용
신청 자격 증빙 서식 간소화 필요	신청 시 서류 간소화 - 최종 선정 후에 필요자료 증빙
지나치게 짧은 면접 시간	면접시간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



03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 2020 평가 지표 개선 워크숍

문 제 점	개선방안
실패, 문제발생에 대한 반성이 부재	교육 수혜자 만족도 성과와 참여자 수치의 정량평가 지양
교육자의 만족도에 대한 지표 부재	연속지원을 통해 우수단체 발굴 육성 및 지역거점화
단체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 모색 필요	지속적인 소통의 방식과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기획추진
단체의 철학에 대한 질문의 경직성 탈피	
비대면 시대 단체의 방향성 모색 필요	



04 광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노력

○ 2021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상호협력망 구축



04 광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노력

○ 2021 예술교육 온라인 플랫폼 조성

아카이브	큐레이션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우수 예술교육 콘텐츠 도입
온라인(영상) 콘텐츠 취합·관리	장르별·대상별로 선별하여 제공
도내 기초재단·민간단체 콘텐츠	이용자 관심·흥미·성향을 추정·분석
실시간 송출 서비스 제공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감사합니다



발제 요약

경기문화재단이 전국 최초로 설립된 문화재단이고 또 수도권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센터의 사례가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변화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에 대한 것과 광역센터로서의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 번째로 나눌 것이고, 저희가 현재 변화하고 있는 사례와 실천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9년에 경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렇게 3가지 목표와 추진전략 5가지를 설정하고 경기문화재단예술교육팀이 2019년에 신설되면서 지금 현재 팀 내에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20년이 넘도록 예술가들이 창작지원과 진흥에 주력해 왔었다면 예술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신설된 것은 2019년부터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모든 세대를 포괄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 사명감을 광역재단이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라고 읽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2014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시행으로 시민문화교육사업의 수요가 증대했고 평생교육이나 생활문화지원센터와 같이 다양한 교육사업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재단 내외부의 환경변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부각이 되었던 것도 예술교육이 조금 더 부각되었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력을 갖춘 시민사업과 품격사회를 위한 토대가 곧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지역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형 문화예술교육기획사업을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팬데믹으로 초래된 비대면 상황에 갑작스럽게 놓이게 되면서 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전면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저희는 기초시군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추진하였던 지역거점 중심의 경기시민예술학교와 청소년예술교육의 경기틴즈뮤지컬, 학교예술교육사업이라는 3대 사업을 경기도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시 어떤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멈추어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가보지 않은 길을 위해서 사실 어디든 자문을 구하거나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고 실험하면서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했었고 뜻밖의 수확을 얻기도 하여서 문화예술교육을 과연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면서 가야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재단으로써의 어떤 정책목표와 핵심가치를 고르게 확장하고 이행하려고 했던 저희 노력을 2019년과 20년의 사업연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팀이 신설되었고, 문화예술교육으로는 그 안에 센터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굉장히 단선

적으로 과제별 하나 혹은 시범사업 혹은 연구수립 정도의 사업들로 운영되다가 2020년에는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청년매개지양성과정과 경력자 중심의 예술활동가의 재교육 역량과정까지 신설하였고,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올해에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반구축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단체들에게 고통 분담을 같이 나누고 활동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획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단체들을 많이 선정해서 지원하였는데 올해에는 조금 더 지역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성을 강조한다는 것이 역사와 전통으로 함몰되는 지역성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이 투영된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젝트와 단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중지원하고 민간거점을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중앙에서 거의 틀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상황에서의 사업이었지만 저희가 경기형 문화예술교육의 토대를 고민하고 싶어서 작년에 연구과제를 실행했고 이 부분을 더 반영해서 경기의 지형에 걸맞는 새로운 기획사업들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도 올해는 자체 기획을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윗부분과 아래 세 부분을 나눴는데, 윗부분은 교육진흥원과 매칭해서 저희가 문체부에서 함께 지자체 예산이 도비로 이루어지는 기반구축 사업의 틀이고 아래에 세 곳의 제7과 과제9, 과제11 관련된 사업들은 경기도 예산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양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반구축사업의 중앙단위의 정책예산으로 빈틈이 있는 부분을 지역 예산으로 메워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확충, 지역거점에서의 협력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정책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왔었습니다. 공모 지원사업의 관성과 소통 방식을 변화하였던 것인데, 보통 기존에 한 단체 방문을 2,3일 정도 하면서 현장 컨설팅과 모니터링이라는 사업 점검방식을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최소 6~8회까지 심지어 단체들이 왜 이렇게 귀찮게 대화하자고 하냐고 할 정도로 횟수를 늘리고 깊이를 가지면서 쌍방향 그룹 온라인 대화방과 유튜브 라이브, 현장 만남, 평가지표와 양식 개선 워크숍, 온라인 북토크 그리고 12월 마지막까지 달려서 온라인 성과 공유회까지 언택트 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통해 보았습니다.

당장에 모든 것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행정과 현장 교육의 거리감을 좀 해소하고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지침들을 걷어내는 성취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어떤 워크숍을 통해서 수업 회차 기술이나 특히 경기센터가 증빙서류와 신청 서식이 아주 복잡하고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모적으로 많이 피로감을 느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단순화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신념이 지원신청에 담겨질

수 있도록 올해 공모사업에는 양식 개선을 하여서 반영할 예정이며, 성과지표 부분도 전 부 다 성과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참여자의 수에 너무 집착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우수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도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준비하는 경기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기초시군 지자체 혹은 기초단위의 문화재단 예술교육팀과 서로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고 공동 기획사업을 발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그치면 사실상 그다음 해의 인사발령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각각 어떤 사업도 진전이 되지 않는 경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이미 사전에 기초와 협력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설정을 해 놔고, 그 예산을 통해서 상호 협력망 라운드에서 각자의 수요와 기초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밀착형 사업 아이템들이 무엇인지 공개된 자리에서 공통으로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운영하였던 지역거점 협력기획사업은 시민예술학교와 뮤지컬, 교과연계 교육연극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해서 광역에서 기초단위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사업에서도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거점공간을 발굴하되 저희가 시범적으로 1-2년 정도를 해 봤었는데 이것을 제도화해서 3년까지는 집중지원할 수 있는 민간거점을 발굴해서 협력망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기획사업도 원래는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선정 단체들과 협력사업을 해 왔던 것을 기초문화재단과 같이 예산도 매칭하고 지역에 훨씬 더 걸맞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기초와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조성입니다. 저희 예술교육지원센터가 기존의 정보공유 정도의 홈페이지에 그쳤다면 작년에 문화예술교육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편했고, 그것에 더해서 올해에는 교육콘텐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영상교육서비스 실시간 송출이라든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단체나 공간, 거점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경기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우수한 예술교육 콘텐츠들도 어떻게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큐레이션까지를 기획해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1년차에 다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비대면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가 시대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유연한 플랫폼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10년간 다양한 트렌드 연구 혹은 기본계획수립 혹은 발전 방향,

활성화 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있었는데 사실상 경기도 31개 시군의 경기도민들에 대한 수요자들의 취향조사, 수요조사, 교육에 대해 어떤 욕구가 있는지 조사를 사실은 하지 못해서 올해에는 연구과제로 수요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서비스나 교육기능, 교육을 고민해서 조금 더 확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과제

김용진 팀장
(연수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발제문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과제와 전망

들어가면서

‘2005년’ 문화예술교육이 국가의 문화정책사업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인지 15년의 세월을 지나 작금에는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제도의 수립과 정비가 이루어졌고, 문화예술교육의 개념들이 다양한 담론으로 논의되었다.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출발과 함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정부 단위에서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정책들이 다채로운 갈래로 사업화되어 지역에 뿌려졌다. 그런 과정에서 현장성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중앙 단위의 정책과제들을 포용할 광역 단위의 파트너가 요구되었고 그 결과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먼저 설립 추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월에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같은 해 5월에 발표된 「새 예술정책」의 제시에서 보듯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 관한 요구와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의 요구는 ‘지역문화분권’ 실현이라는 국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기초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지역문화분권 실현에서는 보다 촘촘한 개별 대상을 향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자신은 물론 타인에 관한 관심을 관계망으로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문화적 토대를 이루는 지점들을 지역민들이 찾아내고 거둘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를 내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돌이켜 보건대 ‘2005년’ 문체부가 직접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진행한 첫 공식적인 대단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었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지역사회연계’의 이름을 단 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아닌 ‘학교-지역사회연계’라는 타이틀에서 보듯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질, 환경, 인적·물적 인프라, 역사성을 포괄하는 이른바 ‘지역성’을 배경으로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상정하고 있음을 볼 때 근자에 제시되고 있는 ‘지역문화분권의 실현’이 새롭게 떠오른 국가 문화정책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15년 전 이미 지역문화분권의 실현은 예고되었고 실행의 여지를 배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당시에는 파격적인 3년간 연속지원의 형태로 추진되었다)을 추진해 이끌고 가면서 도출되었던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이 제도적 정착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진행된 후 종료된 채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지정의 시작에 머문 것은 깊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당시 광역 단위가 먼저고 그 다음이 기초 단위라는 관료적이고 관례적인 결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5년여에 걸친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에서 쌓인 현장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고민, 포착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와 기획자,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 및 예술가 그리고 문체부와 교육부와의 협업구조에 맞물린 기초와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동시에 고려했었다면 축적된 문화예술교육의 힘을 통해 더욱 견고한 ‘지역문화분권’이 성큼 도래했을 것이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그때 그 상황에 관한 아쉬움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①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과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후회는 접어두고 ‘지역문화분권’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시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초’라고 하는 지역 단위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밀착력이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그 파급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파급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내에서 깊이 있는 지역 현황과 자원들이 조사되어야 하며, 이것에서 추출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적절한 추진체계(체제)가 필요하게 되며, 광역 단위와는 그 역할과 소임을 달리하는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요청받게 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연구, 인적·물적 지역 내 네트워크,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과 적용, 지역 문화예술교육 강사, 활동가, 기획자들을 매개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 모두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방식으로서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유기적인 환류의 방식을 견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직적 구성이 전제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갖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체계성’은 지역 현장에서의 요구(needs)와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해 갈 수 있다. 중앙 단위와 광역 단위가 지니기 힘든 정책 변화의 신속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보여줄 수 있는 운영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법제도 안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좁은 범위의 문화예술교육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미 현장에서는 학교와 사회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도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체

로 바라보고 있기에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상관관계를 염두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학교 안의 상황이 문화예술교육을 특화하거나 수월하게 진입시킬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여전히 입시 체제의 공교육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밖에서 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작동시키는 것이 교육의 밀도와 확장력을 제고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연히 이른바 <문화예술교육 전용(전문)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전문)공간’은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안정적인 현장 활동과 배치에도 기여 할 수 있고, 지역 예술가와 연계 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배양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조건을 열어 줄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꿈꾸는 예술터’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 15년간 추진되어 오면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물리적 거점 조성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등장한 고려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2005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추진되면서 이미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예술교육 현장모형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핀란드의 ‘아난탈로(Annantalo)’를 굳이 상정하지 않더라도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공간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그렇기에 ‘꿈꾸는 예술터’조성과 같은 문화예술교육공간을 만들어가는 정책이 반갑기도 하지만 그 시작이 뒤늦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아쉬움을 자아 낸다.

‘이론’과 ‘실제’는 가끔 이반 되기도 하지만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결합력이 높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은 그 체계를 현실화하고 정책적 판단이 유효한가를 실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되어주기 때문에 조직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구조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공고히 하고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이루어진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작동 시나리오 분석 연구>를 보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 면밀한 지역 분석,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획, 자원연계, 주체들의 활동촉진, 협력망 구축, 기초센터운영
- 수요조사, 자원조사 정례화, 기존 플랫폼 활용한 소통 활성화
- 구의 인구 구조,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도시민들의 정체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공공기관과 연계 및 프로그램 교류
- 생활권 시설, 야외 공간 활용, 민간 운영공간 연계 및 활용
- 교육주체 네트워킹, 연구모임 운영,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역 내 잠재적 주체 발굴
- 교육, 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광역 및 기초재단과의 교류, 주민자치단와의 교류 및 참여 체계 마련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작동 시나리오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에서 발췌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②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의 시작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그 자체로 선순환하는 체계가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5년의 시간을 거슬러 온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사회 안에서 자생력을 지니고 성장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즉, 건강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예술교육이 크게 조명받았던 이유는 비단 학교와 지역 사회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아난딸로 사례 때문만이 아니었다. 조명받았던 요체는 핀란드 공교육에서의 예술교육이 학교 밖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관련 대학 및 박물관 미술관과 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로 잘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유치원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문 예술교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그 기회를 전문적 체계를 갖춘 경로를 통해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조건들을 국가 단위의 교육 정책으로 배려하는 모습은 핀란드 예술교육의 부러운 단면이었다. 한때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문체부는 문체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칸막이를 친 채 서로 등지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정책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이른바 백년지대계를 고려하는 교육 설계를 통해 문화예술이 교육을 만나 교육이 더 풍부해지는 정책적 교감으로 이행되는 것이 정말 가치 없고 어려운 일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 된다.

결국, 위로부터의 정책적 고려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밑바닥으로부터 생태계 조성의 가능

성을 헤아리는 것이 더디지만 쉽게 교란되지 않는 생태계를 직조하는 방식이 아닐까 한다.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혹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은 최근 들어 빈번히 회자 되는 화두다. ‘2005년’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연계’를 고민했던 것처럼, 또한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과제가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을 통해 깊이 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구현과 학교에서 지역 사회로의 문화예술교육 외연 확장을 도모했었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노정 하는 중대한 시도였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이루는 방법은 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량강화 과정 그리고 지역 예술가와 도서관, 문화원, 예술회관, 평생학습시설 등을 지역민과 연계하는 활동 등인데 이것은 곧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활동 범위와 일치한다. 더불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이 붙게 되면 비로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지역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만나고 고민하고 연계하는 이른바 ‘허브’역할을 탑재하게 된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요한 촉매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의 효과적인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궁리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안타깝지만 기초는 소거된 채 2009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취지와는 다르게 중앙(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역에 내리기 위한 중간조직의 의미가 더 컸다. 사실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명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몫이 아니라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몫이라 할 수 있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미 나타나 있는 것처럼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정책 거점이며 기초 단위에서 형성된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의 네트워크를 시도할 수 있다. 기초 단위에서 발굴된 자원을 연계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은 광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과제에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과 향배를 보여주는 큰 흐름의 연구개발 과정을 제시한다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밀착형이라는 말답게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 환경, 거주형태, 구

성원, 세대를 아우르는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광역에서 제안한 방향의 틀을 따르면서 만들어가면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움에 이른 경우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같이 중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면 방식의 교육이 갖는 라포형성과 몰입의 밀도에 있어 여전히 비대면 방식의 교육 운영이 대면 방식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시도의 가능성을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현장 문화예술교육 운영의 숨통을 열어 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은 이용자의 접속 환경의 편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상호 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환경에 대한 구축이 요구된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플랫폼의 구축은 기초 단위에서 생성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집약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대한 선택의 폭을 높이는 동시에 홍보 노출의 빈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인력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의 제고와 관련하여 운영될 수 있는 각종 연수(예술가, 기획자, 공무원, 교원 등)프로그램, 네트워크 및 이슈 포럼, 문화예술교육 분야별 전문보수교육 등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 및 운영된다면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는 현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적용과 운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초 단위로 들어가면 문화예술교육의 수혜라는 측면이 광역 단위와 달리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도 효율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수요 및 인식조사와 모니터링,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지역 내 자원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내 상존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등이 수행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그 의미를 증명하는 인문적, 철학적인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학제적 연구수행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감당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단위에서 모아진 인적·물적 인프라와 자원들을 총괄적으로 공유하고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 역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감당해 주어야 할 것들이다.

나가면서

문화예술교육이 정책사업으로 15년간 추진되어 오면서 그사이 문화예술교육은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최근에는 생활문화의 범주 안에서 역할에 관한 선명성과 연계지점들을 요구 받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에서는 앞서 언급된 부분들이 고스란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다. 혼란의 양상은 문화예술교육을 풀어내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미 ‘교육’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생활문화에서도 취미 혹은 취향의 이름으로 예술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기능적으로 또는 방법론적으로만 국한에서 구분할 경우 문화예술교육 자체로서의 존립은 미약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혼재되고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품고 있는 심리적, 철학적 가치와 예술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환기되고 증명됨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부여할 수 있는 의미와 가치의 함량이 유지된다면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생활문화 영역이건 평생학습의 영역이건 간에 품을 수 있는 이야기는 다채롭고 풍부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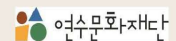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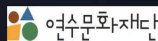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씨앗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문화권리의 신장과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은 각별하다.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의 과제와 전망

김용진

(연수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들어가면서

■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 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성장해 왔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출발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체계적 구현을 위해
중앙단위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05~)이 광역단위에서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2009~)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2018년 1월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동년 5월에 발표된 「새 예술정책」에서 보여지듯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 관한 요구”와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요구”는
“지역문화분권”실현이 국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기초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정책 과제로
대두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아이러니 하게도 이미 '2005'년 문체부가 직접 전국단위 공모로 추진했었던 학교
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무려 ‘학교-지역사회연계’의 이름을 단 학교문화예술교육이었음.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
①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과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기초'라고 하는 지역 단위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얹혀 있다.

따라서

- 밀착력 높은 프로그램 운영
- 깊이 있는 지역 현황과 자원 조사
-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방향 설정 및 제시

가능한 적절한 추진체계가 필요

→ 광역 단위와 그 역할과 소임을 달리하는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설립을 요구 받게 됨.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
①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과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 갖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체계성'은

- 지역 현장에서의 요구(needs)와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고 반영할 수 있음.
 - 학교 안과 학교 밖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음.
 - 학교도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체로 보고, 지역 사회를 넘나드는 문화예술교육이 요구됨.
- 안정적인 현장 교육관련 <문화예술교육 전용(전문)공간>조성을 요구 받게 됨.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 ①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과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문화예술교육 전용(전문)공간>은

- 문화예술교육사의 안정적인 현황 활동가 배치에 기여함.
 - 지역 예술가와 연계하는 등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배양하고 적용할 수 있음.
 - 물리적 공간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됨.
-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지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이 전제되어야 함.
- 최근 그 필요성의 대두로 인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꿈꾸는 예술터>사업이 전개되고 있음.

핀란드 아난탈로(Annantalo)



아난탈로아트센터 건물(왼쪽), 황성기 예술교육정책과 아난탈로아트센터를 소개하는 카이사 케투넨(Kaisa Kettunen) 아난탈로 아트센터 송글다렉터(오른쪽)



아난탈로 아트센터 워크숍 프로그램

- 출처: 서울문화재단 공식블로그 <취향대로 즐기는 스팍랜드>에서 발췌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
①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과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이론’과 ‘실제’는 가끔 이반 되기도 하지만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천이 필요함.

이러한 상관관계를 생각했을 때,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결합력이 높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은 그 체계를 현실화하고 정책적 판단이 유효한가를 실험할 수 있는 리트머스가 되어주기 때문에 조직과 공간이 어우러지는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구조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공고히 하고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시너지가 될 수 있음.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
②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의 시작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그 자체로 선순환하는 체계가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의미”

그러나

- 건강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아직도 상존
- 학교와 지역 사회를 조화롭게 연계하는 지점 부재
- 국가 단위의 유기적 협력체계 부재(교육부와 문체부의 평행선)

→ 위로부터의 정책적 고려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밑바닥으로부터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
②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의 시작

최근 문화정책의 화두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그러나 이 화두는 15년 전부터 있었음.

‘2005년’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연계’를 고민했던 것처럼, 또한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과제가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을 통해 깊이 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구현과 학교에서 지역 사회로의 문화예술교육 외연 확장을 도모했었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노정 하는 중대한 시도였음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된다.

기초단위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시도-
②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의 시작

- 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량강화 과정 운영
 - 지역 예술가, 도서관, 문화원, 예술회관, 평생학습시설 등 지역민등과 연계하는 활동
- 이 모든 것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터**’의 활동 범위와 일치
- 여기에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이 함께 하면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지역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만나고 고민하고 연계하는 이른바 ‘**허브**’역할을 탑재하게 됨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0),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설명자료 5p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효과적인 협력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궁리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구축 및 역량 강화”

라는 사명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아니라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명 오히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정책 거점 역할을 하고
- 기초단위에서 형성된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연결하는 거시적 네트워크 형성 하고
- 기초 단위에서 발굴된 자원을 연계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역할이 가능
-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 제시
-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의 아카이브 및 운영 플랫폼 구축과 운영
- 문화예술교육의 학제적 연구수행 수행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전파

발제 요약

먼저 2005년도에 제가 처음 정책적 사업을 시작했던 학교 지역사회 연계, 학교 시범사업에 가담했던 사람으로서 15년만에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말씀드리려니까 준비하면서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 이미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을 논의해 주셨고 최보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김진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양한 정책적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매우 반가우면서도 2005년이라는 그 년도를 제가 특별하게 제시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시작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바람과 함께 기초단위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시작되면서 정책적 사업이 시작된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이 시범적으로 3년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3년간의 연속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내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뿌리내리고 확장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2018년도에는 1월에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나 금년 5월에 발표된 새예술정책에서 보듯이 새롭게 제시된 화두, 즉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성에 관한 요구나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 요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새롭게 등장한 그런 패러다임은 아니고 이미 2005년도에 등장했었던 개념이라는 생각을 환기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그냥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연계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더라도 초년도의 정책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과의 연계성이 학교라는 단위의 사회와 어떻게 긴밀하게 좀 조율하는가에 대한 충분히 고민하면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원고를 쓰면서 2005년도라는 특정한 해를 조금 상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도 많이 돼 왔고 지금까지 최보연 교수님의 발제내용 그리고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김진희 센터장님의 발제내용에도 보듯이 이미 광역단위, 중앙단위에서 다양한 정책적 사업들이 변모되면서 왔었는데 이제는 화두가 기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저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초단위의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지역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뿌리내림을 위한 선제조건으로는 역시 체계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이 시작되고 있지만 사실은 2005년도에 이미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시범사업이 진행됐던 것처럼 지역성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미 15년전에도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라

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라고 하는 지역단위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얹혀 있고 요구되는 3가지 사항들은 특히 밀착력 높은 프로그램 운영, 깊이 있는 지역현황과 자원조사,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방향 설정 및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광역 단위가 중앙단위의 정책적 거점 역할을 했었다면 그 소임을 달리하는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을 당연히 요구받게 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갖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체계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의 기초단위에서는 중앙에서 뿌려주는 파편화된 단위사업들을 중심으로 또는 지원사업 중심으로 사업들이 이뤄져 왔었고, 광역단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지만 여전히 중앙과는 차별화된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단위사업들과 크게 차별화를 느낄 수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중앙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예술교육의 양상을 다 담을 수 없듯이 광역단위에서도 각 기초단위마다 처한 상황들을 충분히 다 반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나 역할의 부분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지역 현장에서의 요구들을 발빠르게 수용하고 그 변화에 상응할 수 있는 조건들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내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위에 분포되고 있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좀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005년도 사업도 그랬지만 보통 우리가 편재적으로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고 나누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은 학교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구성체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예술교육이 요구되고 있고 학교 안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학교 밖과도 긴밀한 연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책으로써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성 설립과 함께 안정적인 학교 밖의 현장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이 새롭게 요구받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은 최근에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통해서 반갑게도 전개가 되고 있는데 꿈꾸는 예술터의 사업의 대상이 유휴공간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기부체납 시설로 창의예술터라는 기본개념을 갖고 있는 아마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꿈꾸는 예술터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창작공간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설을 바탕으로 저희도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용공간이 생긴다는 것, 물리적인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사가 매 해마다 상당 부분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박물관, 미술관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문화예술교육사에서 가담한 적이 있었지만 아직도 조금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은 이렇게 지역 내에서 계속 배출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예술가 혹은 활동가, 기획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물리적 공간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불러들이고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들은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지원사업이 끝나면 휘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 혹은 전용공간이 전제되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 기초단위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난탈로는 워낙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최초로 아난탈로의 책임 큐레이터가 와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난탈로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의 기본 베이스로 아난탈로와 같은 유형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문화학년제처럼 학교 안에 연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단계적인 체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구현하려고 조심스럽게 올해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론과 실체는 굉장히 맞닿아 있죠. 물론 이론과 실체는 항상 검증되고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듯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정책들이 실제적으로 지역 내에서 구현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는 역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상상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이 확인되고 지역성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니즈에 상응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과 체계성을 갖고 있는 조직공간이 같이 어우러져야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이 조금 탄탄해지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에 대한 니즈까지 포함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조응하면서

진행되면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기본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그 자체로 선순환하는 체계로 마련한다는 대전제가 있고 이것은 역시 지역 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도 건강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공감대가 남아있다는 것과 학교와 지역사회를 조화롭게 연계하는 지점들이 부재한다라는 차원이 있고, 더불어서 국가 단위의 유기적 협력체계의 부재 현상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반갑게도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이 될 때 교육이라는 화두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와 문체부가 아마 처음으로 서로 협력관계를 이루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들을 이끌어왔던 사례가 있는데 현재는 교육과 문체부가 서로 교육 정책이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서로 협업 관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 단위에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앙단위에서 선결,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밑바닥으로부터의 생태계 조성, 기초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지역 내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결하는 지점들을 발굴해내고 전용공간을 통해서 학교와 사회가 자연스럽게 예술교육이라는 매개로 이루어지는 접점을 만들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시된 정책적 내용의 골자는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혹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2가지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화두는 15년전부터 이미 있었던 내용이고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당시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정책적 연결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2009년도에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3년간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용도폐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필요성에서의 먼저 선순위를 따졌을 때 광역과 중앙단위를 연결하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이 먼저 요구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광역과 기초가 함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태생적으로 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광역에만 국한돼서 지냈던 부분들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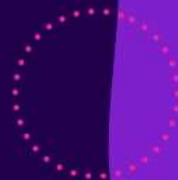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문공간은 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유효하고 더불어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인력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고 기초단위 안에서 산재되어 있는 지역 예술가, 평생학습시설로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도서관, 문화원, 예술회관, 평생학습시설 등 지역민들과 연계하는 이른바 지역문화 활성화 혹은 생태계 조성의 내용들은 정확하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활동범위와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이 같이 함께하면 정말 문화예술

교육을 매개로 지역민들이 서로 문화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허브역할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거점구축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내면서 제시했던 앞서 나왔던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 당시에 이 기초거점의 운영원리가 원래 지역 내에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15년을 건너뛰어서 최근에 와서 논의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기초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협력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6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우선 광역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정책 거점의 역할을 하고 기초단위는 지역밀착이 되어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운영거점으로써 역할을 한다면, 광역단위에서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기초단위에서 형성된 다양한 지역적 가치를 연결하는 거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기초단위에서 발굴된 다양한 자원이나 프로그램들을 서로 연계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초단위에서는 실행력이 높은 단위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구조겠지만 오히려 광역단위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성이나 혹은 프로그램 개발의 중추적인 내용들을 제시해 주는 연구로 같이 하게 되면 기초단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과 연동했을 때 굉장히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들의 개발이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기초단위에서 발굴된 다양한 내용들을 아카이브하고 정보화해서 부리는 플랫폼, 경기센터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반갑게도 이런 플랫폼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요구들이 많습니다. 기초단위에서는 실행력 높은 사업단위에서 사업한다고 하면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학제적 연구수행을 계속 통해서 지역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들을 조금 더 내재화하고 전파하는 연구수행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증명해 주는 그런 차원을 역할들을 계속한다면 기초단위와도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처럼 말씀드리면 최근에 현장에서 요구들이 조금 많이 있죠.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심지어는 평생교육 체계 안으로 다 빨려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영역이 평생교육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에서의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교육을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국한을 한다면 당연히 평생교육이나 생활문화의 범주에서 특별한 구분이 없겠지만 문화예술교육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인문적인 내재적인 가치와 예술적 효과들이 계속 환기되고 증명된다면 문화예술교육이 누릴 수 있는 그 가치와 의미는 지역 내에서 휘발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활문화나 평생교육에서 연동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이 교육 자체에서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



지 정 토 론



지역화 대비 제도적 준비 필요사항

오원엽 주무관
(완산구청 건축과 / (前)전주시 문화정책과)

토론문

1. 예술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

예술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전담조직 구성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 기초단위의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전담조직 구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기초단위 거점 구축 공모사업을 전주문화재단 직원들과 협업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문체부에서 제시한 기초단위 문화예술 거점 구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게 되었다. 핵심요지는 근거규정 마련, 협의체 구성, 센터조직 구성, 지역연계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였는데 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이 가이드라인의 모든 것을 사업의 수행주체(전주문화재단)가 충족시킬 수 있을 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민간단체가 기초단위 예술교육 거점 구축 사업을 주도하기에 너무나도 버거워 보였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모든 과제를 전주문화재단이 예술교육 사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전주문화재단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었다. 조례제정, 센터조직 구성, 지역연계(도서관, 미술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지자체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핵심과제가 지자체 협업 또는 지자체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들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례제정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며, 센터조직 구성도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센터조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결국 지자체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 될 수 밖에 없다. 지역연계의 핵심 기관인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도 결국 지자체의 부속기관 또는 산하기관들과 연계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을 보급·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런 것들은 결코 지자체의 의지와 지원 없이 문화재단의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속도감 있는 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차라리 추진주체가 민간단체가 아니라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 할 정도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물론, 지나친 행정의 개입은 문화예술활동의 창의력과 유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전문가의 조언도 들었지만 개인적인 확신은 문화예술교육의 보급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단계까지는 문체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고 기반 구축을 어느 정도 완성시킨 이후 민간의 영역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전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재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는 조금 더 앞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전주시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고 민선7기 핵심과제로 선정되면서 전주시는 예술교육 전담팀을 구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게 전주시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타 지자체 상황 그리고 전주시도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예술관련 산하기관 및 예술단체 관리, 여러 가지 현안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해 정작 중요한 문화예술교육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과 의지를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포럼에서 참여하면서 생각을 해봤다. 물론, 단체장이 문화예술교육의 비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 될 일이다. 그러나 그런 막연한 바램을 떠나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을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국비지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지원의 루트를 보면 주로 문체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광역센터,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

필자가 예술교육 업무를 맡는 동안 문체부에서 지자체에 직접 예산지원을 했던 사업은 꿈꾸는예술터 사업이 유일했는데 이마저 공모를 통해 전주시가 1호였고 이후 성남시를 비롯해 몇몇 선정된 소수 지자체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예술교육을 위해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은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지자체가 대다수이며 더욱이 예술교육분야의 예산편성은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할 일로 치부해 버린다. 예술교육의 이해 부족과 예산부서, 의회의 저항에 막혀 예산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에 관심을 갖을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문체부)에서 직접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든 특교세를 내려주든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예술교육 예산이 편성되면 당연히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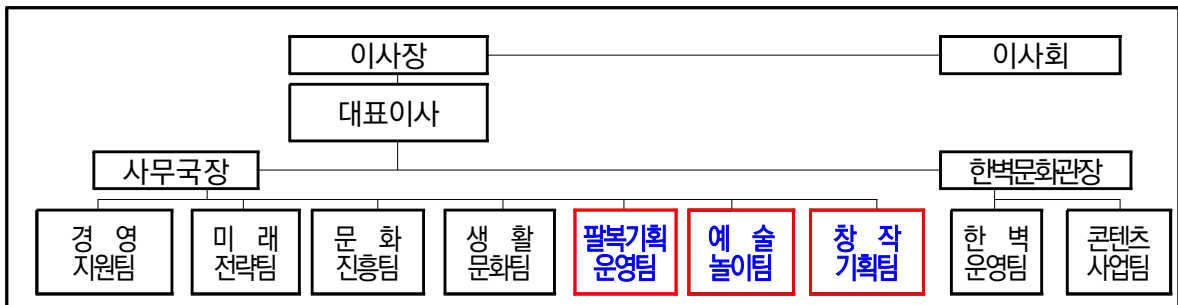
개인적인 생각은 예술교육 지역분권, 기초단위 예술교육 거점구축을 위해서는 각 기초지자체 문화예술교육을 주관하는 과 단위의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팀 단위 조직, 그것도 어렵다면 예술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임기제 인력 1명이라도 있어야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예술교육 사업이 늘어나면 지자체는 조직진단을 통해 전담인력을 충원하게 될 것이고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지역의 예술교육 기관, 단체와 연계사업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2. 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 구축 사업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경험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직 구성

전주시의 경우 비대해진 전주문화재단의 조직을 개편하여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수행할 팔복예술공장의 3개의 팀을 재단에서 별도 분리하여 기초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독립성을 갖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출연기관의 인력증원, 인건비 증가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며 특히, 인건비의 예산증액은 예산부서와 의회에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지속적인 설득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기구표(전주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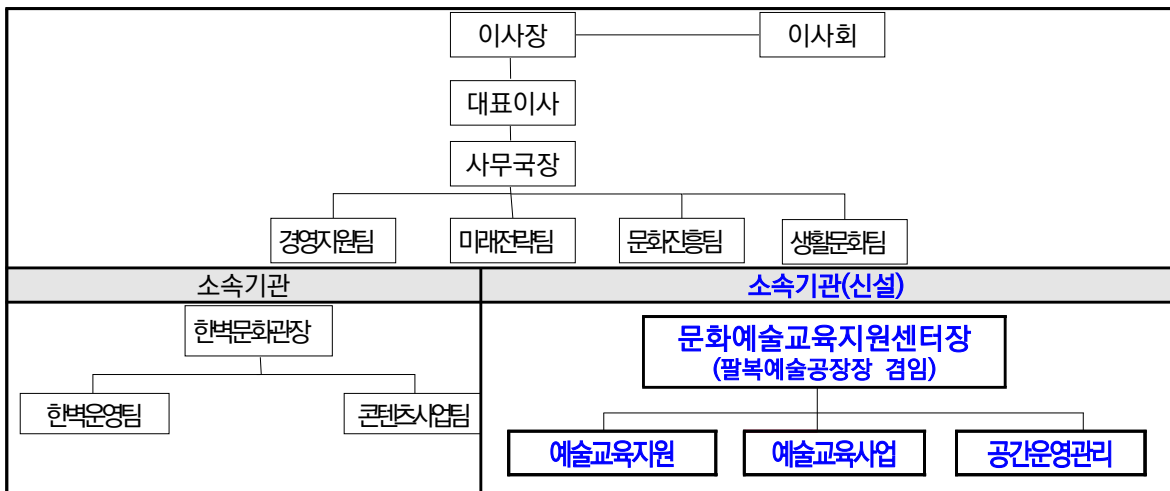
□ 조직개선 검토(안)

1안) 팔복예술공장을 재단에서 분리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민간위탁 운영

- 조직의 독립성은 있으나 정규직 인력 감축 필요
- 현재 예술교육 업무를 이행할 적합한 수탁 단체가 없으며 직원의 고용불안, 재계약 등으로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부족

2안) 전주문화재단의 소속기관으로 독립운영

- (기구) 1국 1관 9팀 ⇨ 1국 4팀 2소속기관



- (인사) 소속기관장에 소속기관 직원 임용권한 부여
 - (회계) 소속기관에 기준금액 이하 예산 집행권한 부여
-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사례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조직구성으로 고민하면서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살펴보게 됐다. 광역단위 지원센터 조직은 별도 독립된 공간, 센터장을 중심으로 2개팀정도 구성에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와 달리 대부분 광역단위 지원센터 조직은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문화교육을 담당하는 팀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업무를 겸하고 있었다. 아마도 광역단위 지원센터도 문화예술교육 업무만 전담하는 별도 조직, 공간, 독립된 권한을 갖춘 센터 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저항과 지자체의 의지 부족,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과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탄탄한 조직구성이 우선 시 되어야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전주시에서는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지역 선정 및 예산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작년 3월부터 조례(안)을 준비하여 11월에 전주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공포함으로써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제정은 보통 제정계획 수립 후 부서협의(성병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4개월정도 소요가 되나 전주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가 제정되기까지 9개월이나 걸렸던 이유는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전주시가 선제적으

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 설득에 더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에 없던 ‘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에 의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센터가 신설될 경우 조직 구성, 인력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것의 우려와 향후 센터가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를 의회에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결국, 당초 계획 했던 제정(안)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수정되고 삭제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기능을 하는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센터설치에 대한 내용은 제10조에 교육시설 지원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삭제되었다.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 2020.11.09 조례 제371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진흥시키고 전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 단체 등과 협력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전주시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문화예술교육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단체 사업의 협력·역할부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2.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 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0.11.9. 조례 제3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가 직접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핵심 사업

야호! 예술학교 운영사업

4차 산업혁명시대가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의 영역 밖이라 여겼던 예술분야까지도 유명 예술가의 예술적 특징, 추구하는 화법 등 예술적 감성의 모든 데이터자료를 분석하여 인공지능이 만드는 예술작품이 웬만한 예술가의 작품보다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 갈 미래세대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창의적 예술교육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예술교육의 현실은 더디기만 하다. 이제는 문화예술정책의 변화에만 기대기보다는 교육정책의 핵심과제로 문화예술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교 밖 예술교육이 아니 학교 안의 예술교육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

전주시 야호! 예술학교 운영사업은 학교 안을 창의적이고 유연한 예술교육 공간으로 바꿔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예술교육 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분권을 대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야호! 예술학교 운영사업

- 예술가와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하여 학교의 상막한 공간에 예술놀이 작품 등을 제작·설치하는 사업
 - 전주시에서 2019년부터 추진하여 7개소 예술작품 35점 설치

- 2020 야호! 예술학교 운영 내용

대 상	인봉초등학교
작품명	꿈이 있는 마을
참 여	작가 : 김누리 / 4~6학년 학생 12명



작가-학생 공동 회화작품



공동 회화작품 설치(2층 실내)

대 상	인봉초등학교
작품명	보물창고 아지트(둥글게 가게 2호점)
참 여	작가 : 박은주 / 4~6학년 학생 12명



둥글게가게 2호점 작품설치(2층 실내)



둥글게가게 2호점 운영(물품나눔실천 창고)

대 상	인봉초등학교
작품명	아담의 정원
참 여	작가 : 김두성, 이경배, 임현정 / 4~6학년 학생 12명



아담의 정원 작품 설치(3층 실내)



아담의 정원 작품설치

대 상	풍남초등학교
작품명	꿈꾸는 보도블럭
참 여	작가 : 진창윤, 김지우, 최지선, 이윤경 / 4학년 학생 33명



작가-학생 공동 바닥블럭 페인팅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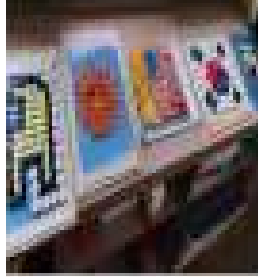


바닥블럭 페인팅 작품(실외 놀이공간)



지역화 대비 제도적 준비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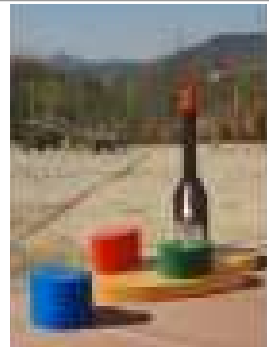
대 상	풍남초등학교
작품명	꿈을 찾아 떠나는 여행
참 여	작가 : 진창윤, 김지우, 최지선, 이윤경 / 4학년 학생 33명



작가-학생 아트벤치 타일디자인 수업

아트벤치 작품 설치(실외 놀이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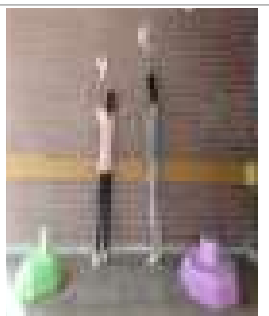
대 상	대정초등학교
작품명	꿈을 심어 Dream, 꿈을 그려 Dream
참 여	작가 : 한주연, 염정우, 이다나, 김도빈 / 6학년 학생 105명



꿈을 심어 Dream 작품 제작 설치(실외)

꿈을 그려 Dream 아트벤치 설치(실외 놀이공간)

대 상	용흥초등학교
작품명	우리가 상상하는 나들목 미술관
참 여	작가 : 고지은, 김마리아, 장혜원, 오수혁, 최성호 / 6학년 학생 1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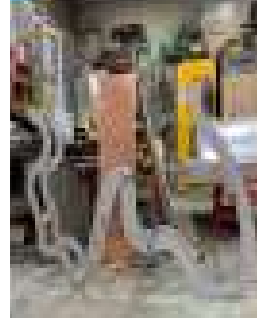


우리가 상상하는 부조작품 제작설치(실내기둥)

나들목 미술관 아트벤치 설치(실외 놀이공간)

지역화 대비 제도적 준비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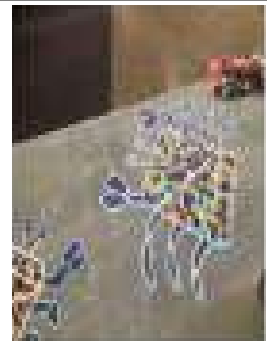
대 상	양현초등학교
작품명	고래의 꿈, 꿈을 꾸는 나비
참 여	작가 : 박경덕, 유원희, 김종찬, 양슬기 / 6학년 학생 132명



고래의 꿈 작품 제작 설치(실외 유희공간)

꿈을 꾸는 나비 작품 제작 설치(실외 유희공간)

대 상	팔복예술공장
작품명	바다소풍(현대식 바닥놀이 블록 페인팅)
참 여	작가 : 진창윤, 이윤경, 김지우, 최지선, 김누리, 김두성



전통놀이 가미 현대식 바닥놀이 블록 페인팅 (팔복예술공장 주요도로)

운 영	야호!예술학교 운영활동
활동내용	작품회의, 작품 및 자료제작 자문 등
참 여	곽승호(총괄감독), 김해곤(예술자문), 엄혁용(예술자문), 송상민(기획자문) 오태풍(영상), 김하생(운영 발전방안 연구)



작가, 예술분야 전문가 작품회의 등

예술분야 전문가 자문활동

발제 요약

저는 2019년도부터 전주시청 문화정책과에서 예술교육업무 그리고 팔복예술공장 업무를 맡았고 실무자로서 기초거점 구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참여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토론자로 초청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교육 관련해서 저는 비전문가고 일반행정업무,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저의 실무적 입장에서 준비했고 거기에 중점을 뒀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기초거점 문화예술교육 건축공모사업에 참여했을 때 그때 재단 직원들과 같이 사업설명회도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구상, 계획서 작성,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했었는데 기초단위 문화예술거점 구축사업 문체부에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같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던 핵심요지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센터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 미술관 이런 곳과 연계하는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골자였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체가 전주문화재단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전주문화재단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재단이 예술교육 거점구축에 강한 의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에 제시됐던 내용들을 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부분도 있고 센터를 조직해서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전주같은 경우에는 재단이 기초거점 사업을 참여했기 때문에 재단의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전주 지자체에서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 지역연계 핵심 기관인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 이런 곳도 결국 지자체의 부속기관이거나 아니면 산하기관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의지나 도움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는 구축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초거점을 구축하는 단계까지는 지자체가 차라리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가질 정도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전주시가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술교육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앞서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전주시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고 민선 7기로 접어들면서 핵심과제로 예술교육에 대한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예술교육을 전담하는 전담팀이 구성되었고 그 전담팀이 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지자체에 있는 예술교육의 행정력을 지원하는 현실을 전담팀이 구성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담팀이 생기기 전에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정책과는 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산하기관도 관리해야 되고, 예술단체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를 관리하다 보면 그 과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행정력을 미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예술교육에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든지, 팀 단위의 조직 구성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예술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인력이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과연 전주시처럼 어떻게 하면 지자체가 예술교육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끔 하고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주시처럼 이렇게 단체장이 예술교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어떤 바람을 떠나서 문화예술교육의 지방분권을 위한 지자체 역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자체가 직접 예술교육에 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 지원되는 그런 루트를 보면 문체부에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광역센터 그리고 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예술교육 업무를 맡는 동안에 문체부에서 지자체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꿈꾸는 예술터 사업이 제가 맡는 동안 유일했는데 그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몇몇 지자체만 선정되고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결국에는 예술교육을 위해서 시비,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자체의 경우는 사실 재정 자립도가 워낙 열악하다 보니 예술교육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예술교육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도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체부에서 지자체가 직접 어떤 예술교육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보조금이나 진흥원이나 광역센터, 이런 루트를 통하지 않고 문체부에서 바로 지자체에 예술교육 관련 사업들을 좀 펼칠 수 있게끔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일거리가 늘어나 전주시처럼 문화정책과나 문화예술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것들을 업무가 늘어나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충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력이 늘어나다 보면 저희 전주시처럼 예술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생길 수 있게끔 조직을 진단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예술교육을 전담하는 팀이 생기면서 지역에 있는

재단 등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술교육 업무를 맡아 기초거점 사업을 구축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초센터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것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역센터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봤었고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광역센터 조직을 볼 때 센터라는 공간과 그다음에 조직이 갖춰져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의 기능을 재단이 같이 하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저도 기초센터 조직을 어떻게 갖춰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출연기관의 인건비나 인력, 직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 조직진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엄청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할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센터가 새로 신설되기는 쉽지가 않고 결국에는 재단 조직의 센터를 같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도 결국에는 재단에 있는 조직에서 팀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센터를 해야되지 않냐는 구상을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재단의 소속기관으로서의 독립된 기능을 부여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작년 3월부터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준비했었는데 11월에 지원조례 공포를 해서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보통 조례제정은 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제정되는 기간이 3~4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이 9개월이나 걸렸던 이유는 의회에서 동의받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없던 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은 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 센터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3월 달부터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했는데 한 번 부결이 되고 결국에는 거의 9개월이 걸린거죠. 11월 달에 여러 부분들이 삭제되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아쉽게 빠진 부분이 있지만 전주시 조례에는 크게 협의체 구성, 그다음에 센터 설치,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지원 큰 골자는 그것이었습니다.

지역화 대비 광역단위 준비 필요사항

이현혜 팀장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협력위원회 위원)

토론문

'예술' 이 예술가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은 끊임없이 소통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규모 대면이나 비대면, 온라인 등 소통의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에 가까운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마을 단위, 작은 모임 단위, 학교 단위, 도시 단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고민해 왔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기 위해 나를 표현하고 우리를 표현하는 예술을 통한 소통 방법을 고민했으며 서로를 응원하였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은 모이는 것부터 시작이다. 모이는 공간과 사람,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 그 곳을 우리는 현장이라고 한다.

현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현장과의 소통은 얼마나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가 현장과 행정, 지원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본다. 현장을 잘 아는 방법은 하나이다. 서류만 보고는 알 수 없기에 많이 만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진이나 영상만으로도 알 수 없는 현장의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곳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하는 조직에서 모든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에서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장을 알기 위해 애쓰고 같이 느끼고 체득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지원조직은 현장에서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문화예술교육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행정조직'의 눈으로 현장을 보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화예술교육은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참여율로 실적을 이야기한다면 1년 동안 10명이 될 수도 있다.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주민 10명 참여라는 숫자를 보면서 단순 나누기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잘못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성 분석,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피드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예술교육은 1년에 100명이 참여하기도 하고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참여자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라진다. 그래서 양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힘든 분야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문화예술교육은 최소 10년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본다.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예술의 기초이고 힘든 사람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힐링'이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성과가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빛을 발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공감을 이야기 한다. 코로나로 힘든 이런 시기에 더욱 더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자치단체에서는 단기적인 실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초적인 토대가 튼튼해야 건물이 오랜 시간동안 잘 버텨주듯이 문화예술교육이 긍정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화예술교육은 지원하는 곳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중요하다. 지역중심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지금 중앙의 정책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방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주도적인 기획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장이 중요하고 현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기반을 마련하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김용진 팀장님의 발제처럼 2007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종료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역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졌고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게 되었다. 지역 실태조사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발굴하게 되고 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예술가, 공무원, 교사, 지역주민 등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방향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년간의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역거점을 통해 협력기관을 찾고 네트워크를 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회의를 하고 타 지역 사례를 찾기도 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풍물 장단을 가르치고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모임을 해야 하고 지역의 특성을 찾아야 한다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가이드가 없었다면 고민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만을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부족한 민간단체에게 도움을 준 담당공무원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

능한 일이었다. 담당공무원의 행정지원은 언론보도 등 홍보를 담당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발표회 등 행사 장소 협조와 포럼 등의 진행을 맡아 협력이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 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기에 지역주민과 예술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본다. 이런 경험을 돌아보면서 광역재단은 현장에서 예술가들의 활동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특히 신규 단체나 문화예술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 예술가에게는 행정조직의 도움이 절실하다. 2000년대의 문화예술교육은 사례를 만들어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모범답안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했다. 그런 시기를 지나 지금은 모범답안이 아니라 지역에 적합한 창의적인 풀이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후 15년 동안 현장에는 많은 사례들이 생겼고 많은 인력들이 배출되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활동을 고민 해 온 많은 민간단체가 생겼다. 이런 민간단체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동안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왔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해 노력해 왔기에 지역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지역을 만나 온 활동가의 노력을 모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발적인 지원사업이지만 계속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을 읽는 눈을 가지게 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 현장 활동가들을 모아내는 것, 그들이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을 지역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기초센터와 지역거점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 광역센터에서 예술가와 다양한 협력을 해왔다. 예술가가 경북 전체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자발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현장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다양한 협력의 방법을 시도하였다.

경기의 김진희센터장님의 발제에서 경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에서 상호협력망 구축이나 워크숍은 광역센터의 역할로 의미가 크다고 본다. 경북에서도 10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협력의 방안을 고민해 왔다.

경북센터에서는 예술단체에게 단순히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의무사항이 추가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했다. 모임의 장을 열어주는 위해 가까운 지역 사람들이 만나기도 하고

같은 장르의 단체들이 만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서 만나기도 하였다. 이후 교차모니터링, 프로그램 공유, 강사 공유, 행사 합동 진행 등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협력을 시도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었다. 서로의 멘토가 되어주기도 하고 평가자가 되기도 하고 변화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였다.

각 단체별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 이후 협업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하는 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축제 기획단 운영, 연수 기획단 운영, 작은 축제 진행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북의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저조한 지역을 위한 활성화 방법을 고민하고 경북의 특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함께 하면서 운영하기도 하였다.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민간단체 중심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초와 광역센터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남겨진 과제들에서 많은 부분 공감하며 사업 실행주체로서 민간 발굴을 지원하는 방식, 공공은 실험, 시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더하여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좋은 사례를 취합하고 발굴·확산하는 것,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하여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신규 예술단체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초센터 연계 협력 체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특화 방안 모색하여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과제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사람이 전부이다.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변화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노력해서 지역을 일으키기도 한다.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천천히 노력한다면 사람이 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발제 요약

김용진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대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사업과 지역거점 사업까지 담당자였던 사람으로서 팀장님께서 너무 제한적으로 종료된 것이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지역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의 문화예술교육은 사전지식이라든지 누가 가르쳐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단히 어렵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가이드나 저희 담당 공무원의 협조가 없었다면 그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원엽 주무관님의 전주에서 예술교육 전담팀이 구성돼서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전담팀이 구성되는 것이 최초의 일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간다면 좋겠다는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000년대에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면서 지자체, 그러니까 행정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지자체의 노력들이 없으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이 제대로 가지 않을 것 같더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의 문화예술교육은 사실은 사례를 만들어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답안이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모범답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현재는 사실 모범답안이 아니라 그런 시기를 다 지나서 지역에 맞는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은 뭘까라는 풀이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15년동안에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결합하고 행정조직들도 많이 결합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잡고 있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면서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진흥원의 방향성과 같이 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고 어떤 협력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김진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상호협력망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경북에서도 사실 2011년에 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10년 동안 협력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지원사업 안에서 민간과 어떤 협력을 해야 될 지에 대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과제를 많이 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공모해서 결정하고 지원해서 현장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그런 방식들이 아니라 저희 광역센터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자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까지는 최소 5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협력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을 강제적으로 네트워크 모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임을 시작해서 교차 모니터링, 프로그램 공유, 강사 공유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 권역별로 사업별로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니까 민간단체들이 스스로 축제도 만들고 특별한 행사도 같이 만들게 되고 신규단체를 위한 연수도 같이 기획을 하게 되면서 서로서로 멘토가 되기도 하고 평가자가 되기도 하면서 경북 전체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간단체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교육이 광역단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기초단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행정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체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 지자체 관계자, 참여 인력, 예술가들, 참여자의 의견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사람을 키우는 체계를 가지는 것이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연 교수님께서 생활권 단위에서 사업 실행주체로서 민간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가야되고 공공은 실험이나 시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더해서 광역센터의 역할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의 자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인력들을 10년, 15년 동안 활동했던 인력들을 지역의 전문가로 만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발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기초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광역센터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지역화 대비 현장 준비 필요사항

전영주 팀장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협력위원회 위원)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

[토론3]
지역화 대비 현장 준비 필요사항

충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장 전영주
2021. 1. 22.(금) 14:00 ~ 16:00

지역화 대비 현장 준비 필요사항 : 5가지

현장 분석 → 다양한 주체 역량 강화 → 협력관계 구축 →
先 연구 後 실행 → 지역 모델 구축

[현장 분석]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실태)조사

문화예술단체, 기관, 학교, 사회시설 등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

문화예술교육 종합 및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과 맞춤

[일반현황] 인구현황/노령인구 증가율 및 노령화 지수/전출입 현황 및 가구원 수 변화/세대 구성 및 연령별 보육아동/교육기회 및 전공분포/문화와 여가/10년 후 지속 거주 의향

[사회문화예술교육기관 현황] 기관별, 장르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장르별 세부 교육 내용(공예/시각/음악 등)/박물관 미술관 프로그램 수 및 프로그램 유형/도서관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 및 유형/청소년 수련관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수 및 유형

[시민 조사] 생활&문화예술활동 실태/문화예술교육 활동 욕구/문화예술교육 정보 및 인식

[기관 단체 조사] 소재지/프로그램참여자수/내부상근인력/문화예술교육활동비/지원사업최초 진입연도/교육대상/교육장르/충북문화예술교육센터 인지도 등

[예술감사 조사] 예술감사 거주지 및 활동기간/전업 활동층 및 문화예술교육 소득 만족도/문화예술단체 소속층/진행방식/대상

[실행주체 조사] 어려움/제도 및 정책 관련 개선과제/프로그램 개선과제/수요자 개선과제

[정책방향설계] 정책방향 분석/비전설계방향/목표설계

[사업설계] 목표별 세부사업 설계/연도별소요예산/자원조달/사업계획(안)

[다양한 주체 역량강화]

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등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의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

전문인력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사 등 정책 및 사업들이 이루어짐

향후 누구나 쉽게 다양한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교육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문화예술교육사 인증기관 지역 확대
- 광역 및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활용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온라인 상시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교육정보 제공
-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관련 학과 설립 및 운영의 지속성 : 청년 예술인 지속 발굴
- 문화예술 감사 재매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 전문 인력을 꿈꾸는
당! 당신에게 드리는
포! POST!**

코로나 19로 움츠러들지 못 한 T T
충북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떡볶이'
온라인 심폐소생 프로젝트 **전!당!포!**
그 동안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일과 삶**을 다시 나눠드립니다.



[협력관계 구축]

참여자 기반, 지역사회 이슈 해결 기반, 지역자원 활용 기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프로그램과 연관된
행위자들의 협력관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협력의 관계로서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문화가 만들어가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

함께 생활하는 삶 안에서
작동하는 지속성

협력관계 구축 방안

-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 문화기반 시설과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 교정 시설 등 특수시설과 문화예술교육의 협력
- 주민조직과 협력관계



협력관계 구축 유형

- 참여자 기반 협력
- 지역사회 이슈 해결 기반 협력
- 지역자원 활용 기반 협력
- 문화예술과 비 문화예술의 융합 기반 협력



공공과 공공,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분권화 필요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Chungbuk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Center

5/12

[先연구 後실행] 아트랩 사업, 기획연구개발 지원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지원체계 전략 구축

경쟁에 의한 선발이 아닌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 설계

지원금을 넘어 단체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
영역의 확장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의 차별화 전략

헬로우아트랩 사업(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는 단체(예술가)에 대한 지원
- 하고 싶은 것이 불분명한 단체(예술가)에 대한 지원
- 공동학습을 위한 소통의 단초를 설계 할 필요
- 대상의 역량에 따른 지원체계의 다각화
- 학교와의 협력방안의 현실화
- 거점형 기획 등 지역과의 연계방안 및 장기적 생성
- 스스로 작업과정을 돌아보고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험



기획연구개발비 지원(2021년 예산집행 지침 적용 예정)

- 연구개발비 활용
- 연구개발비는 대체활동(기획연구활동) 중, 조사연구,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책정
- 연구계획서, 회차별 회의록, 연구보고서(결과물) 작성 등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Chungbuk Cultural Arts Education Support Center

6/12

[지역모델 구축]

예술가-지역주민 연계 거점 모델 개발 :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

지역과 연계한 거점
재생성 및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역자원 연구 등
문화예술교육으로 관계
맺기 형성

2021년 거점플랫폼형
(일반지원), 지역밀착형
(연구, 개발 지원)으로
연구와 실행 병행

2년+2년으로 중장기 지역
모델 구축 운영예정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Chungbuk Cultural Foundation Chungbuk Culture Arts Education Support Center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예술가와 지역 주민 연계 거점 모델 개발
- 지역 문화예술교육 주체 육성 : 정책 파트너십, 지원영역 다각화
- 민간 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인식 전환 : 생활권 기반의 지역 거점 기관 활용
- 참여기반의 공동 문화예술교육 정책구상 : 지역별, 주제별 연구 협업 거점 수립

**현장은 지역사회의 일상적 만남 연결, 지역의 이슈활동,
파트너 찾기 등 '이미거점' 을 구축하고 있음**

**교육방법보다는 방향성 생태적 삶의 실천의지를 가지는
'실천거점' 이 필요**

**익숙함에서 낯섬으로, 실행이전의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효율적 전략수립을 통한 '지역거점' 지속**



7/12

발제 요약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부한 부분들,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무엇을 함께 준비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기초와 광역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충북의 사례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5가지 부분입니다. 현장분석, 다양한 주체의 역량 강화, 협력관계 구축, 선연구 후 실행 그리고 끝으로 지역 모델 구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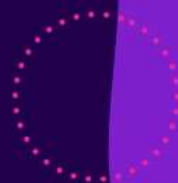
먼저 현장 분석입니다. 다들 많이 하고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단체, 기관, 학교, 사회, 시설 등에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이해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 했던 현황조사에 대한 지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는 정형화된 실태조사보다는 지역의 현안에 맞는 실태조사의 지표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표를 만들고 어떤 것들을 조사해야 될 건지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협의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사의 결과물들을 토대로 현장의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이라든지 사업구조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되고 녹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담아봤습니다.

현황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사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인증기관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려 있다든지, 이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기관을 지정하여 상시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플랫폼이 온라인적으로 교육 정보가 제공되고 만날 수 있는 장을 확대한다든지 또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교육, 순수문화예술학과의 설립이라든지 운영의 지속성, 즉 청년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향상될 수 있는 기구, 문화예술 강사에 대한 재매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현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충북에서는 이런 전문인력을 꿈꾸는 당신에게 드리는 포스트라는 센터 홈페이지에 4가지 부분의 교육들을 상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체들의 역량 강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들이 참여자 기반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지역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들로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특히나 주민조직과의 협력관계와 참여자 기반의 협력 특히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것을 어떻게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요즘 특히나 융합 부분, 문화예술과 비문화예술의 융합 기반에서의 협력들이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서 현장 문화가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 되어야 하지않

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력 관계와 역량 강화, 현황조사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체계와 함께 경쟁에 의한 선발보다는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 지원금을 넘어 단체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 영역의 확장을 통해서 충북에서는 아트랩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도전을 해 보려고 하는 기획 연구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헬로아트랩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단체들이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게 있는 단체가 있고 또 하고 싶은 것이 조금 불분명한 단체들이 먼저 선연구, 즉 공동학습이라든지 대상의 영역에 따른 지원체계의 다각화, 학교와의 협력 방안, 스스로의 작업과정들을 돌아보고 평가의 주체가 되는 일말의 경험, 즉 연구와 실험들을 통해서 한 단계 실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저희가 익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 특성화나 꿈다락이나 일반적인 문화예술지원사업 구조 안에서도 이런 실행의 내실화를 더더욱이나 구축하기 위해서 기획연구개발비라는 지원을 일부 사업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지침이나 대체활동, 연구계획서 이런 보고서 작성 부분들을 이런 사업 안에서 추진할 수 있게 해서 현장에서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의 차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실행의 중심도 있지만 실행을 조금 더 연구하고 실험해서 같이 협력하고 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4가지의 현황조사와 파트너 찾기, 역량 강화 그리고 어떤 지원사업 구조의 체계를 통해서 이제는 지역화 그리고 지역분권의 시대에서 각 지역에 맞는 모델들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떤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연계한 거점을 모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예술과 지역주민의 연계, 기획자와 시민들과의 모델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의 주체, 민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점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현장은 이미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은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방법론적이라기보다는 실천의 의지하는 실천거점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역거점이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



토론 및 질의응답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영주 팀장

앞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협력관계 구축, 파트너십 찾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진흥원에서 했던 포럼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은 파트너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요즘 협력관계라는 말은 많이하고 있고 앞에서 저도 간단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협력관계라는 구축이 굉장히 뜬구름 잡기 식으로 생각하면서도 지역 안에서는 제가 고민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지방법원이라든지 평생교육포럼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과 파트너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파트너, 저희의 파트너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 예술인들과 참여 대상자가 실질적인 파트너인데 그런 파트너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최보연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최보연 교수

현장에서 계셔서 가장 답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 발제드린 부분들이 현장이 중요하고 기초단위에서 민간을 육성해야 되고 민간의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공공이 관리자가 아니라 촉진자로서 접근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강조하고 말씀드리기는 했었지만 현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측면에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인적자원들을 엮어내고 그들을 위한 촉진이, 관리가 아닌 촉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북센터에서 전영주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오셨지만 기초의 입장에서 헬로아트 랩이라든지 단체나 예술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민간의 씨앗들을 발굴하셔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게 하고 실험할 수 있게 하는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것이 단 순간에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가면서 계속 긴 안목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지금 충북 그리고 경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실험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확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감되고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가능성하게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오히려 저는 그 질문해 주신 것에 얹어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

이현혜 팀장님께서도 아까 협력에 대한 것을 2011년도부터 힘을 기여왔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 엮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이어서 질문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현혜 팀장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추진했었는데 1~2년, 3년 동안은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왜 지원사업을 하면서 예산만 지원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귀찮게 모이라고 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남한테 공유하는 것도 불편한데 그런 것도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계속,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코로나 때문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이제는 워크숍도 왜 이렇게 적게 하는지, 교차 모니터링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시고 이제는 그동안에 지원 받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는 했지만 공공재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북에 소외되는 지역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력은 토론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가지게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협력의 수위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도 대상에 맞춰서 매년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협력의 방법을 생각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담당자가 계속 현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협력의 방안을 구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인 것이 민간단체와의,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던 단체와의 이런 협력은 꾸준히 여러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주민을 위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마음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김용진 팀장님께 제가 질문을 할 것은 기초와 광역이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협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은 있지만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기초와 광역의 협력방안,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문화재단 생화문화팀 김용진 팀장

일단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연수문화재단이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기초문화예술 신생 문화재단으로써 인천하고도 연수구 안에서 기초단위에서 어떻게 제대로 구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2020년도에 저희가 현장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질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들과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서 문화예술교육이 갖고 있는 정책적인 이해도가 각 지점마다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에서 어떤 니즈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했었고 결론적으로는 광역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역할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시설 이런 부분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때 전문 기획자나 전문 예술강사들을 생각보다 쉽게 만나는 걸 어려워 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풀에 대한 플랫폼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굉장히 결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유용하게 풀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워낙 파편적으로 공유하다 보니 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단이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가는 형식이 아니고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가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 같은 소단위에서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속에서 평생교육의 트랙, 생활문화의 트랙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문화예술적인 담론들을 담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수요도 높이고 지역에 맞는 지역형 문화예술교육을 심는 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전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생겨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하고 역할 정립이 설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초단위, 특히 재단이 없는 곳까지 아울러서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들이 어떻게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세팅하고 또 인력들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는 일종의 라운드테이블 혹은 원탁회의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역 내에 상존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니즈라든지 전격적인필요의 요소들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 확산될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기초는 아무래도 예산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광역단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인력적인 플랫폼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정책적인 것들을 아카이빙 해 주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단위가 충분히 중앙단위의 정책적인 내용들 그리고 사업단위에 대한 프로그램들 공유,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대응하는 그것을 만들어주시면 기초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 확산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셨는데 이 중에서 몇 개만 조금 모아서 의견을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경기센터의 라운드테이블 굉장히 기대가 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응원과 지지와 기대에 대한 문구를 공유해 드리고, 생태계라든지 추진체계라든지 이런 용어가 여전히 정책적 용어라서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체적으로 조금 반성을 해야되는 부분이 아닐까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들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길을 끄는 내용 중에 기초센터가 모든 기초단위에 설립이 된다고 기대를 해야되는 것인지 그리고 기초센터가 없다면 그 단위에서는 광역이, 광역센터가 그 단위의 기초센터처럼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견들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226개의 기초 지자체단위에 기초센터가 다 설립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진흥원도 그렇고 누구도 보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는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초센터가 당장에 없는 지역, 설립되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없는 지역에는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희 모두 고민하는 지점일 텐데 방금 말씀해주신 광역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냐라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센터가 모든 지역에 있지는 않을 텐데 설사 기초지자체에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작은 마을단위는 미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들 긴장하고 계실텐데 경기센터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1년도

부터 기초문화재단들이랑 논의 테이블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시고 공동의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이 기초센터는 아니지만 작년에도 고민을 털어놓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커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들었던 기억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조금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진희 센터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한 20년정도 되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지금은 17개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문화재단이 되어 있는 곳은 문예진흥 쪽 차원에서는 이미 예산을 배분해서 기초문화재단들이 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체계를 짜서 운영하고 있고 예술교육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추진체계나 협력망이 굉장히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한 10여년정도 운영되면서는 거의 경기 모든 지역에 골고루 예산을 다 쪼개서 공모사업의 형식으로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쳐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광역들도 크지겠지만 이 부분은 경기도도 너무 큼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처럼 도심, 농촌과 바다까지 모든 양상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이것을 문화예술교육의 차원으로만 국한하면 너무나 할 일이 많고 힘들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 재단에 생활문화팀, 지역문화팀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기초단위에서도 평생교육원 등 여러 다양한 문화시설과 거점들이 산발적으로 모두 흩어져서 자기 역할들을 하시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한눈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능한 꿈을 꾸기보다는 가장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또 조금 반가운 것은 새로 생겨나는 문화재단들에서 문의전화를 서슴없이 주셔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냐, 혹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우리 예술교육팀이 새로 신설됐는데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기초적인 정보만 제공해 드려도 굉장히 기뻐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안도를 하는 것을 제가 올해 느꼈고, 작년에는 저도 이 팀에 처음 와서 기초문화재단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해 챙길 여력이 사실상 없었는데 한 해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기초문화재단 혹은 기초지역과 손잡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다양한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역이든 기초든 경영진의 의지는 단위를 넘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경기문화재단의 지금 대표이사나 저희 지역문화 교육본부의 소속인데 그 본부장님께서 예술교육에 대한 애정과 의지가 강하신 편이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힘을 받아서 무슨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고 기초문화재단과 기초와 함께 저희가 협력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거기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손을 대서 모여보자, 뭐라도 같이 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 항상 공정한 세상과 새로운 경기를 말씀하시고 복지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곳, 소외되어 있고 조금은 문화예술이 덜 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공모나 제도의 틀에서라기보다 저희가 자체 기획을 해서 다양한 예술가들을 직접 발굴하고 또 10년동안 예술교육지원센터가 역할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활동가들의 맵핑이 어느 정도는 자료화되어 있지 않아도 조사가 되어있고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는 다 못하지만 단계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진흥원에서 무언의 압박처럼 기본활성화계획을 세우셨으니 앞으로 그 추진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올해 사업에서부터 하셔야 된다, 추적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고 연구보고서가 장롱 속에 처박혀 있지 않도록 혹은 그렇다면 다시 꺼내서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재단의 경험은 많지만 예술교육사업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는 않아서 앞으로 조금 다각적인 대화 테이블을 통해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

오늘 발제나 토론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핵심사항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지역에 활동하고 계신 주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센터건 재단이건 그 두 주체가 아닐지라도 개인이건 분명히 있기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서 연결시키냐를 노력 많이 하시겠다는 부분이셨던 것 같고 그것이 아마 기초센터가 모든 것의 해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풀어나가는 걸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댓글 올라온 것 중에 오원엽 주무관님의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다는 댓글이 있습니다. 조례안 만드시면서 저희 쪽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공유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조례가 통과되기 직전에 가장 많이 부딪히셨던 부분이라든지 지금은 삭

제됐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완산구청 건축과 / (前)전주시청 오원엽 주무관

조례 제정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술교육에 대한 것 자체가 왜 이것을 지자체가 해야되느냐, 교육청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예술교육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의회 의원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설득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에서 조금 많이 여러 가지가 삭제됐는데 그중에서도 센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센터를 설치한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 조례의 부분 중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상위법에는 문체부 장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위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보니까 센터를 조례조항에 두는 데 있어서 위임을 했느냐, 위임을 안 했느냐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따지는데 위임한 사항도 아니고 만약 지정됐다고 치면 그 명칭이 현재 지정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초거점 그 명칭 자체도 똑같이 쓰면 안 된다 한 마디로 우리가 조례에 넣어야 될 그런 내용은 상위법에서 말하는 그런 센터가 아니라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센터 조직을 신설하는 의미로 그 센터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를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조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예산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직 관련 총무과, 인력 진단하는 부서 그리고 의회에서부터 그런 저항들이 워낙 세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을 넣지 못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

현실적이면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대한 내용도 고민 중이기는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더 많이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어서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 질문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발제해 주셨던 세 분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최보연 교수

오늘 자리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지를 들어보고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점에서 정말 큰 의

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무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이것을 지역에서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접점에서의 고민들을 여기에서 민낯으로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포럼의 의의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져서 계속 공감과 공유와 그리고 고민의 나눔,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진희 센터장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학습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됨과 동시에 광역재단과 센터가 할 일이 많아서 어깨가 점점 무겁구나, 기초문화예술지원센터와 다양한 민간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조직으로 정책적으로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 방향성은 어긋나지 않게 잡은 것 같아서 앞으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다짐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연수문화재단 생화문화팀 김용진 팀장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발제문에는 2005년도부터 고민했던 내용들이 왜 이제서야 구현되고 실현되고 있을까 아쉬워했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15년 세월이 그냥 보낸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광역이든 기초에서든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무되는 것 같고 이제 기초에서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매개 역할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

토론자 세 분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 건축과 / 前)전주시청 오원엽 주무관

저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는 학부모이기도 한데 제가 팔복예술공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 아이가 팔복예술공장에서 처음 예술교육을 접했습니다. 작년 5학년 때인데 아이들이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교육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현실이 2005년부터 예술교육을 그렇게 신경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초등학교 5학년 와서 아 이러니하게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교육이라는 부분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으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술교육이 많은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현혜 팀장

저도 경기의 김진희 센터장님 말씀처럼 어깨가 무겁습니다.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책임감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사실 민간에 있다가 이렇게 재단으로 들어오면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이나 가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어떻게 같이 낼까, 문화예술교육을 더 잘 알리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은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교육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15년만에 다시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예술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표현을 잘하는 방식이라면 문화예술교육은 다른 사람의 예술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이 더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역주민과 기초 그리고 광역과 중앙과 연계하는 방법들을 이끌어내야될지 경북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될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영주 팀장

오원엽 주무관님처럼 문화예술교육의 공공기관 관계자의 노력이 더 많은 일반적 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 그런 관계자의 한 명으로서 올해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시작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새롭게 내실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지역의 관계자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

상황이 다 다르고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어느 것 하나도 사실 해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20년도의 코로나 상황에서 느꼈다시피 지역분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아까 최보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올해 안에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후속으로 여러 가지 시리즈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정보

발 행 인 이규석

발 행 일 2021.1.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등록번호 KACES-2122-C001

홈페이지 www.arte.or.kr | 웹진 www.arte365.kr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76 YTN뉴스퀘어 11~12층

문 의 T.02-6209-5900 / F.02-6209-1395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참여한 발제자 및 토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분권 대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온라인 포럼